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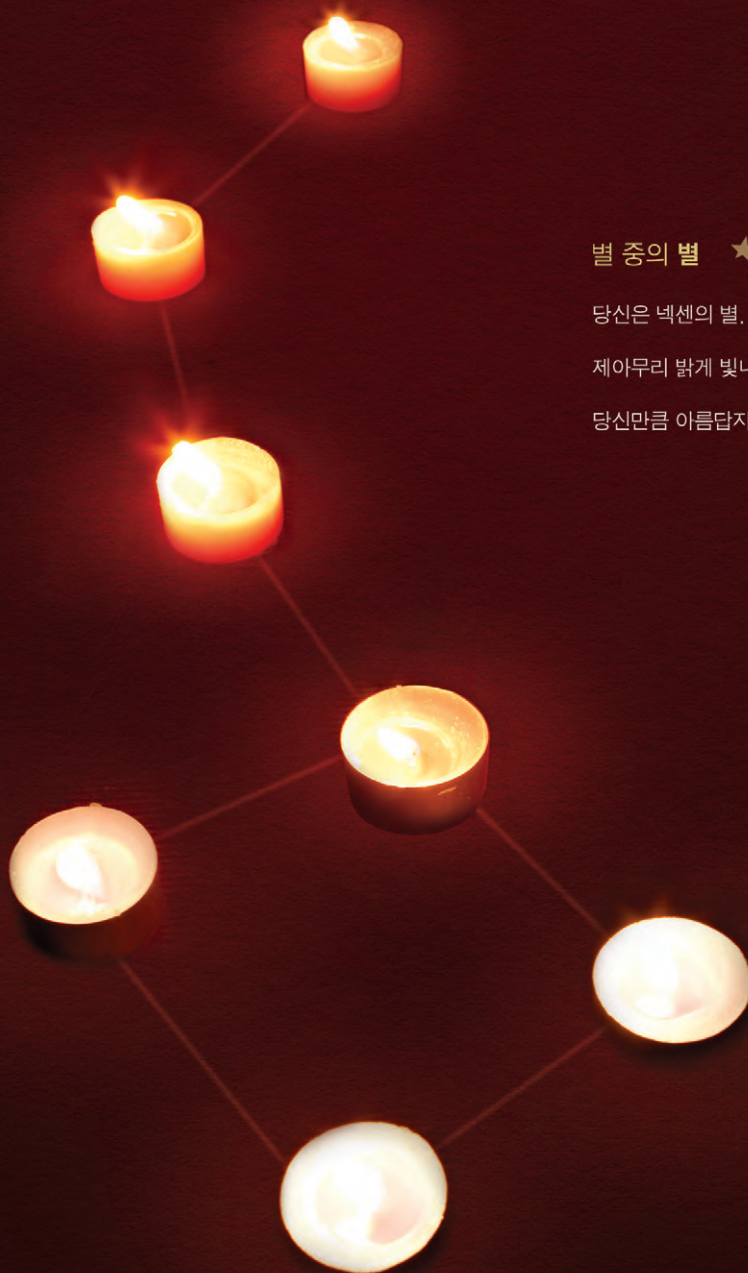
# 헤일로 넥센

## 별 중의 별 ★

당신은 넥센의 별.

제 아무리 밝게 빛나는 별이라도

당신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 NEXEN 2011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1년 신년호 통권 42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1년 1월 18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넥센타이어(주) 인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 디자인 어진아, 지아영, 정진숙, 김지선 | 사진  
사진과책 (02-587-1102)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2011 Vol.42

# HELLO NEXEN

06 신년사

08 넥센명인

## PURPLE

- 10 Global  
2010 SEMA SHOW
- 14 Event  
5억불 수출탑 등 4관왕
- 16 Issue  
명예지사장 위촉행사
- 18 Product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
- 20 Sports ①  
넥센타이어 어린이 야구교실
- 24 Sports ②  
노조위원장배 친선대회
- 26 Tire  
동그란 나무 바퀴,  
마차의 시대를 열다
- 30 Car  
힘세고 알뜰한 디젤엔진
- 34 Nexen Friends ①  
타이어뱅크 울산역점

## GREEN

- 35 나무이야기
- 36 자연에서 배우다  
자연에서 얻은 디자인, 생체모방
- 40 자연에서 놀다  
별이 빛나는 천문대의 밤
- 44 자연에서 만나다  
해양문화연구가 김준
- 48 자연에서 맛보다  
굴의 뽕뽕
- 51 Nexen Friends ②  
타이어테크 광주 금호점

## RED

- 5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설비팀
- 56 가족사진 찍는 날  
태현이 미소는 백만불짜리 미소
- 58 길 그리고 우리  
옛 철길 따라 다산을 찾아가다
- 62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
- 64 별별 콘테스트  
붕어빵가족 인증샷
- 66 나눔 그리고 어울림  
30주년 금속 사우 여행기
- 67 Nexen Friends ③  
타이어테크 전주 덕진점


## BLUE

- 68 사진의 기술  
우리가족에게 딱 맞는 카메라는?
- 70 운동의 기술  
어깨 위 피로감 내려놓으세요
- 72 관계의 기술  
까칠동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74 살림의 기술  
같이 만든 착한 양념, 천연조미료
- 76 News









## 2011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컴컴한 어둠만큼이나 막막한  
겨울의 설산  
엄두도 나지 않는 저 시린 길에  
큰 한걸음 떼어놓은 자의 용기가  
묵묵히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발자국의 수고를 이해하는  
넥센타이어의 여정.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의 출발선에 다시 서서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 없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뒤로하고 2011년 신묘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아울러 지  
난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매출액 1조 원 달성이란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  
니다. 이는 사명을 변경한 2000년 당시 매출액인 2,000억 원  
의 5배가 넘는 실적으로 세계타이어업계 최고수준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에 목표로 세운 '2010년 매출 1조 원과 영업  
이익 10%'라는 중장기 계획을 성공리에 달성함으로써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5억불 수출탑 수상, 최대 생산량 달성, 넥센 히어  
로즈를 비롯한 각종 광고 홍보활동, 창녕공장 기공식 등 지난  
한 해는 우리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매우 뜻깊은 해였습  
니다.

##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하지만 올해 역시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습  
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 고조와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유럽  
과의 FTA, 북한의 위협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 2011 辛卯年

## 새로운 도전의

## 출발선에서서





와 원부재료가의 급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입니다. 특히 천연고무는 재작년 초, 톤당 1,200달러 하던 것이 일 년 사이 3,00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5,0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국 청도공장의 설비증설과 정상 가동, 창녕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초기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인력의 사전 선발과 훈련, 건설공사와 설비 설치, 가동 준비 등으로 우리 모두는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점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 첫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업계 최고수준의 신장률을 보이며 성장해 왔으며,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위해 창녕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경영 전 분야에서 어떠한 낭비 요소도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 잡힌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양산공장과 청도공장이 가동 중이며, 내년부터는 창녕공장에서도 생산이 시작됩니다. 글로벌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제조부문 간의 조율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각 공장 간의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셋째, 글로벌 판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출 대부분이 수출로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한 판매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로벌 판매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매출의 확대와 향후 창녕공장 가동에 대비한 수주물량 확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넷째, 핵심 R&D 역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연구개발부문은 중국 및 미국에 이어 유럽기술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회사의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대폭적인 개발능력의 확충과 글로벌 OE공급을 위한 기술력 확보로 기업의 미래가치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사 간의 신뢰와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19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의 신뢰와 화합의 토대 위에 높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지금의 위기를 발전의 더 큰 기회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매출 1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시작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그 어떤 외부환경에도 견뎌낼 수 있는 내부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 올 한 해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크고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세상은 공장혁신사무국 이승주 국장 TPM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글 허은경  
사진 류병문

5년 전 2006년 9월, 공장혁신사무국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왜 하필 '나' 일까를 먼저 생각했다. 아마도 현장과 사무를 두루 경험한 그가 책임자로 떠올랐을 것이다. 익숙한 일을 버리고 낯선 분야에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당시 입사 18년 차였던 이승주 공장혁신사무국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만약 이승주 국장이 그때 겁을 먹고 물러섰다면 요즘처럼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2006년부터 급성장을 이룩한 넥센타이어가 2009년 엄청난 매출성장에 이어 2010년에는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쁘다는 이승주 국장. 뿐만 아니다. 얼마 전 넥센타이어의 TPM활동을 인정받아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식경제부장관상까지 수상했으니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요즘이다.

“처음엔 예상대로 어려웠습니다. 한번 굳어진 것을 버리기란 참 어렵거든요.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버리고, 높은 데에 이르면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지만 그게 쉽나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참 고맙고 놀랍죠. 더 큰 기업들도 실패했거든요. 5년 만에 불량률 86%나 줄였습니다. 매출향상의 바탕은 품질향상이니 결국 사우들이 큰 역할을 해낸 거죠.”

이승주 국장은 모든 공을 현장의 사우들에게 돌렸다. 지난 5년간 누구보다 TPM을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은 자신이었을 텐데 말이다. 잠시나마 박수를 받아도 좋으려만 오히려 그는 지난 시간이 고맙기만 하단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넥센타이어에서 일하며 키우고 가르쳤죠. 기능적으로 입사해 지금에 이르렀으니 제 꿈도 이루었고요. 또 제 사랑스런 동료들이 저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우들의 마음가짐과 태도, 실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그에겐 큰 기쁨이다. 자기 설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우들의 실력이 부족부족 늘 때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이 없다.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이승주 사무국장은 다시 신발끈을 조인다.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는 채근이다. 양산에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TPM을 달성해야만 창녕공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혁신사무국의 젊은 후배들과, 일취월장하는 현장의 사우들을 멋진 2세대 TPM요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㉞







# 2010 SEMA SHOW,

미주시장 공략 발판 세마쇼에서 신제품을 선보이다

## 그 중심에 선 넥센타이어

‘2010 세마쇼’(SEMA, Special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박람회이다. 지난 2010년 11월 2일부터 나흘간 열린 ‘2010 세마쇼’에는 100여 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자동차 및 타이어, 휠 그리고 튜닝부품 등 다양한 분야를 선보인 ‘2010 세마쇼’. 세계적 경제 침체를 딛고 여전한 인기를 과시한 배경에서 다가올 자동차 시장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글 이정세 UHP개발2팀  
사진 정해봉 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 CP 672, N' blue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2010 세마쇼’가 열리는 기간 내내 라스베가스의 하늘은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창했다. 그런 날씨 덕분에인지 계속되는 경기 참체에도 전시회는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LA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라스베가스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의 도시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처음엔 후버햄 공사와 함께 물려든 노동자를 위한 위락 및 도박 시설들이 기반이 됐지만 카지노 타운, 가족 레저 이벤트 타운 등으로 변모하며 화려한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마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로 매해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100여 개국 5만 명이 넘는 자동차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며 1,000개가 넘는 업체가 그 실력을 겨룬다.

넥센타이어는 세마쇼를 마주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보고 2000년 이후 꾸준히 참가해 왔다. 올해는 대표적인 신제품으로 N' blue, HP20, HPLM 등을 선보였으며, 그 밖에도 기존의 HP, UHP, Winter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해 딜러와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넥센타이어는 경쟁한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위치한 South#1 Hall에 부스를 설치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스는 회사의 상징인 보라색을 바탕으로 내부는 밝은 노란색을 이용해 화사함을 강조했다. 또 전시장 가운데 주력 신제품인 N' blue의 홍보존을 GREEN이라는 컨셉으로 마련해 관람객들이 쉽고 빠르게 N' blue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3개 타이어 패턴과 N3000이 장착된 BMW, 포물러 D 드리프트 참가차량인 마즈다 RX7를 전시해 시선을 끌었으며, 그 밖에도 카운터와 딜러접점실을 마련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







01

## 미주시장 타이어 트렌드를 살피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브랜드별 부스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박람회다운 면모를 과시한 '2010 세마쇼'에서는 미주지역 타이어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지난 에센쇼에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친환경제품을 전시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관련된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였다.

넥센타이어 역시 친환경 제품인 N' blue를 주력으로 선보였다. 홍보존에는 산뜻한 느낌의 잔디밭 위에 타이어를 전시해 친환경 제품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미주판매 주력제품인 N7000과 CP672는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이란 호평을 들었으며, 향후 주력제품으로 도약할 신 패턴(HP20, HPLM)도 미주시장에 맞는 최적화 성능이란 긍정적 평가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밖에도 Off Road 차량 패턴이나 UHP 패턴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Off Road 차량은 다양한 패턴과 사이드월 문양으로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만족할만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 South #3, #4 Hall은 다양한 Off-Road 차량과 타이어가 전시되어 비교 분석이 가능했다.

태국의 Finxx 제품은 이색적인 신기술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타이어 내면에 반유동물질인 Mix sis Macromolecule이 접착되어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공기가 새지 않는 특수한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세마쇼에서도 중국제품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산 UHP 제품 라인업과 엇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기술력이 중요한 최대 28인치 25시리즈의 제품도 상당수 출시되어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업체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계도 지속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이었다.







02



03

01 Off Road 및 Sports Car  
Outdoor 전시 전경

02 ZC Rubber Industry의 타이어  
전시 현황

03 Mickey Thompson의 Off Road  
타이어 전시 현황

04 넥센타이어 LT/SUV 타이어 전시  
현황

05 넥센타이어 안내 부스




04

## ‘2010 세마쇼’를 통해 본 넥센타이어의 내일

세마쇼는 에센쇼와는 달리 자동차 위주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고가의 화려한 차량은 물론 다양한 튜닝 제품 및 여러가지 새로운 부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화려하고 놀라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고루 둘러보며 세계 최대 박람회를 마음껏 즐기고 누렸다.

‘2010 세마쇼’는 미주시장에서 넥센타이어가 준비해야 할 부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였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타이어시장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그간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부하고, 그 결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2010 세마쇼’를 통해 본 세계 시장은 훨씬 더 광활하고 무한했다. 바로 눈앞의 라이벌보다 더 넓은 세상을 상대로 경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략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세계시장에 넥센타이어 제품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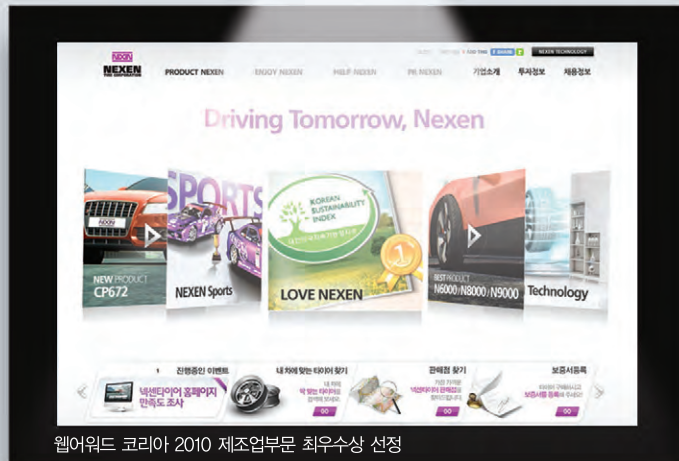
그간 미주법인과 미주팀, 물류팀, 제품디자인팀, 제품개발팀 등 이번 ‘2010 세마쇼’의 성공적 전시를 위해 땀 흘린 넥센인들, 이번 세마쇼의 성공적 참여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멀리 내다볼 기회를 알려준 시간이었다. 앞으로 넥센타이어가 박차고 나아갈 세계시장을 떠올리며 파이팅을 외쳐본다. 



# 2010 SEMA SHOW



05



5억불 수출탑 수상

## 5억불 수출탑, 굿디자인 인증 영광의 4관왕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지속가능성 지수 대회 1위

넥센타이어의 성장은 계속된다. 2009년 경기침체에도 최고 성장률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에도 매출 1조 원 이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 시상식을 휩쓸며 저력을 과시한 넥센타이어. 무역의 날 5억불 수출탑 수상과 지속가능성 지수 대상 타이 어업계 1위 수상, 굿디자인 인증 등 꾸준한 성장을 예고하는 넥센타이어의 2010년 수상 소식을 전한다.

글 박수현 인사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굿디자인(GOOD DESIGN) 인증



### Bravo! 2010년 1조 원 매출 달성

1942년 창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한 넥센타이어. 2000년 넥센타이어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매년 최고성장률을 달성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2010년에는 경남 창녕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공장건설 기공식을 가졌으며, 생산에 들어가는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이어 3강 체제 및 세계 10위권 타이어사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신제품 출시와 유통망 확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증가해 2010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기도 했다.

넥센타이어의 우수한 실적은 각종 연말 시상에서도 입증되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대회'에서 국내 타이어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31개 산업,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업종별 매출액, 시장규모, 지속가능경영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주어지는 이 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발굴, 포상하는 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깊었다.

2008년부터 업계 최초로 명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 점, 지속적인 투자활동으로 신규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바탕이 되었다.

지난 11월 30일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겹경사를 맞았다. 5억불 수출탑을 받은 것에 이어 생산본부 강명진 직장이 수출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된 것. 특히 5억불 수출탑 수상은 경기 침체라는 악재를 이겨낸 점은 물론 2007년 4억불 수출탑 달성 이후 3년 만의 쾌거라 더욱 뜻깊다. 이는 생산 시설 증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근간이 되고, 특히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초고성능(UHP)타이어 시장 개척이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대회 수상

### Congratulation! 연말 시상식 4관왕

디자인도 역시 넥센타이어였다. 넥센타이어는 그간 고부가제품군을 중심으로 첨단 디자인의 타이어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10년 국내 디자인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N9000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받으며 굿디자인(GOOD DESIGN) 인증을 받았다. 최근 세계 타이어시장은 초고성능 타이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기능성과 첨단 디자인을 고루 갖춘 넥센타이어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첨단 기능이 탑재된 최고 기술의 타이어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난 가을 리뉴얼한 넥센타이어 홈페이지가 '웹어워드 코리아 2010'에서 제조업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웹 전문가 1,6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총 90여 개 분야에 걸쳐 한 해 동안 리뉴얼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곳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평가 시상식이다. 디자인, UI, 콘텐츠, 브랜드, 프로모션, 서비스 등 총 8개 부문에 걸친 40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넥센타이어 웹사이트는 화려한 비주얼과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수상을 통해 넥센타이어는 대내외적으로 타이어업계에서의 사회적 입지를 쌓아 국내외에서 더욱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외형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끊임 없는 질풍가도를 달리고 있는 넥센타이어. 2011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여줄 놀라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 당신을

김시진 감독, 강정호 선수

##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합니다

2010년 3월 5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공식 출범 이후 넥센타이어는 국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국내 프로야구 팬들에게 그 이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넥센 히어로즈 역시 2011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2월 15일 그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명예지사장 위촉으로 전달했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이맹호







01 명예지사장 위촉패

02 위촉패를 건네받는  
김시진 감독03 야구공에 사인하는  
강정호 선수

04 대리점 직원들과 기념촬영

06 사인볼을 선물하는 김시진 감독

07 사인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명예지사장 위촉행사는 양평동 서울지사에서 내수영업부문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넥센 히어로즈 김시진 감독과 강정호 선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프로야구 발전과 넥센타이어 홍보에 공헌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과 국가대표 유격수로 유명한 김시진 감독과 강정호 선수지만, 이날만큼은 감독과 선수가 아닌 넥센의 한가족으로서 유니폼이 아닌 정장과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행사에 참가했다. 그라운드 밖에서의 만남이 어색하고 쑥스러웠을 그들이지만 넥센타이어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김시진 감독은 “그간 메인스폰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단이기에 올해 넥센타이어의 스폰서십은 의미가 크다. 구단 프런트는 물론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며 “비록 2010년의 성적은 아쉽지만, 2011년에는 성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넥센타이어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 선수 역시 “2010 시즌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며 “2011년에는 더욱 좋은 기록으로 대한민국 모든 이들에게 넥센의 진정한 힘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병우 부사장은 “대한민국 프로야구 중흥기를 맞아 김시진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한층 빛나고 있으며, 강정호 선수 역시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멋진 기량을 뽐내 주목받고 있다”며 “두 사람을 넥센타이어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단한 티타임과 함께 위촉식을 거행한 이후에는 명예지사장으로서 서울과 경기 소재 대리점을 방문해 대리점주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타이어테크 서부직영점, 스피드메이트 당산점, 타이어테크 영등포점, 타이어뱅크 영등포2점, 타이어뱅크 동일산점, 타이어애펙트 주교점, 타이어테크 일산점 등 총 7개 대리점을 순회하며 대리점주 및 고객들에게 사인볼을 증정했다. 그 밖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야구와 자동차, 타이어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타이어테크 서부직영점 김윤수 점장은 “평소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넥센타이어가 넥센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가 된다는 소식에 넥센 히어로즈 팬으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강정호 선수를 가장 좋아했는데 직접 보게 되니 더없는 영광이다”라며 “2011년에는 넥센타이어와 넥센 히어로즈가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11월 ‘201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대회’에서는 국내 타이어 브랜드 가운데서 1위를,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5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세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12년 3월 국내 제2공장인 창녕공장의 첫 가동을 앞두고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넥센 히어로즈는 지난 11월 목동구장에서 팀 마무리 훈련에 임했다. 2011년에는 김민성, 장영석과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만큼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타선 역시 재정비하며 2011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최대 매출액 1조 원을 거둔히 넘긴 넥센타이어와 2011년 본격적인 불방망이를 예고하는 넥센 히어로즈, 2011년 출범 2년 차를 맞아 서로에게 상생과 발전을 선사하기를 기대해본다. 11



# MILECAP

##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

뛰어난 승차감과 놀라운 경제성

## 내 타이어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택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형차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승객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운송수단'으로써 차량의 품질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승용차 제조 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택시는 운송수단을 넘어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택시는 중저가 차량에서 중대형 세단으로 고급화되었고, 이에 따라 편안한 승차감을 좌우할 수 있는 택시용 타이어 시장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개발된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Mile cap)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뛰어난 승차감과 놀라운 경제성을 실현시킨 넥센 타이어의 야심작이다.



신기술, 신소재 적용으로

마일리지와 경제성, 승차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




## 더욱 향상된 마일리지로 운전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넥센타이어는 고객과 운전자 모두의 만족을 추구하는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Mile cap)을 출시했다. 마일캡은 최장 마일리지(Mileage) 실현으로 타이어의 수명을 연장한 제품이라는 뜻으로 고객에게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운전자에게는 더욱 경제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다. 마일캡은 RSPD(Road Sensing Profile Design) 기술을 통해 노면과 타이어의 일체감을 형성, 접지 시 압력을 균일화시켰다. 이 신기술은 균일한 압력분포로 편마모 및 이상마모를 차단해 기존 제품보다 마일리지를 25%나 향상시켰다. 또한 카본블랙의 분산을 최적화하여 분자 간의 결속력을 최대화하고 신개념 소재를 첨가하여 타이어의 내마모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며 타이어 수명연장의 꿈을 이루었다.

## 운전자와 고객의 만족까지 생각한 뛰어난 승차감

마일캡은 넥센타이어의 첨단 기술력인 OBCS(Optimized Belt Contour System)가 적용돼 더욱 향상된 제동력을 보여준다. 이 기술력은 주행 중 균일한 접지 압력 및 넓은 접지면 확보로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빗길 등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극대화시킨다.

고속에서의 급커브 운행 시에는 타이어의 형상변화를 최소화해 거침없는 코너링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OCCS(Optimized Carcass Contour System)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균일한 최적 면 분할을 실현하였으며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소음 설계기술도 적용되어 쾌적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쾌적하고 부드럽게 느끼는 음의 높이나 크기, 음색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에 접지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였다. 실제 테스트 결과 기존제품대비 5% 향상이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

신기술, 신소재 적용으로 마일리지와 경제성, 승차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리미엄 택시 전용 타이어 마일캡. 마일캡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넥센타이어의 노력과 기술력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 야구의 즐거움을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 야구교실

## Play하다

지난 11월 20일, 목동야구장.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부모가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 야구교실'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였다. 쌀쌀한 날씨 때문에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과 신나는 야구 한 판을 직접 할 수 있는 멋진 기회.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01 덕돌이와 함께 한 기념사진 촬영

02 목동야구장 VIP룸 견학

01



푸른 그라운드에 놓인 베이스, 붉은 실로 108뎀을 떠서 만든 하얀 공, 단단한 나무 배트, 그리고 치고 달리는 멋진 선수들. 야구는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게임의 이름이다. 안타 하나의 환호성과 도루 하나의 짜릿함, 홈런 하나의 전율까지. 추운 겨울의 찬바람은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환호성을 잊아갔지만, 야구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식하지 못했다. 보는 야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뛰고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 넥센타이어의 고객초청 어린이 야구교실 10번 타자들이 만들어낸 야구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소개한다.

### PM 01:00 반짝반짝 VIP 룸

야구장의 구석구석이 시원하게 보이는 넓은 창, 폭신한 검은 소파. 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바로 목동야구장의 VIP룸. 넥센타이어와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 야구교실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와 가족들은 VIP룸에서 오늘의 멋진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 들어와 본 VIP룸 시설에 감탄한 가족들은 본디 야구란 야외에서 큰 소리를 응원하며 보는 것이 제맛이었지만,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차분히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며 다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본격적인 야구장 탐방에 앞서 이번 행사를 마련한 넥센타이어와 넥센 히어로즈 측에서 행사의 취지와 진행 순서를 소개했다. 열심히 경청한 어린이들에게는 간단한 퀴즈와 함께 선물도 증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넥센타이어가 아니다. 어린이 야구교실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마련됐으니, 넥센 히어로즈 마크가 새겨진 모자와 글러브, 야구공이 모두의 두 손에 들렸다. 어린이들은 선물보따리에 마냥 신이나 녀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글러브를 끼기 바빴다. 어린이 모두 10번째 타자가 될 준비 완료 신나는 하루가 시작될 일만 남았다.



02



PM  
**01:30** 야구장의 시크릿 로드

이제 진짜로 야구장을 둘러볼 차례. 우선 경기장 쪽으로 난 VIP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가장 먼저 어린이들을 맞이하는 건 쿵광쿵광 설레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혀 줄 겨울바람. 시즌이 끝난 야구장 스탠드는 텅 비었지만, 그라운드에는 선수들 연습이 한창이었다. 경기가 없을 때도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 연습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1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덕 아웃이 있는 1층에는 야구단 관련 제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VIP룸이 경기장 전체를 관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찾은 기자실은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경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테이블마다 배정된 언론사 자리에 앉아 본 어린이들은 미래의 새로운 꿈을 꾸는 듯 했다. "기자실이 이렇게 따로 있는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커서 꼭 야구전문기자가 돼서 다시 목동야구장,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서울 서장안지점 이의숙 소장의 아들인 이재석 군은 야구해설가가 꿈이었는데, 기자실에 와보니 스포츠 전문기자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 다음에는 복도를 따라 기록실, 코치실, 2군 사무실과 선수들이 식사하는 식당, 치어리더 룸, 의무실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야구장에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내부에 들어오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공간이 많이라며 놀라워했다. 웨이트실을 지날 때는 넥센 히어로즈의 주장 이승용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운동 중이었다. 아이들은 가까이서 본 야구선수에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샤워실과 라커룸에서 나오는 선수들까지 보자, 마치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이 삼촌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고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01



02



03



04



05

PM  
**02:00** Hit & Run 다목적구장

야구장 투어가 끝난 뒤에는 목동야구장 바로 앞에 마련된 다목적구장으로 이동해 직접 야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밟은 어린이들은 신이 나서 경기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보고 자극받아서 일까. 너도나도 멋진 야구선수가 되겠다며 진지한 눈빛으로 프로그램에 임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야구 강습은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는 T볼, 스펀지처럼 말랑하고 일반 야구공보다 1.5배 정도 큰 T볼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야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비이다. 아이들은 10명씩 조를 나눠 배팅과 캐치볼 연습을 시작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파트너가 되어 오랜만에 함께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즐겼다. 캐치볼은 공이 아닌 마음을 주고받는 게임으로, 두 사람의 합이 잘 맞아야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을 던지지 않아도 고정된 막대에 볼을 올려놓고 칠 수 있는 배팅연습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공 하나에 활짝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곳에 오길 참 잘 했다고며 흐뭇해했다. 특히나 환상의 콤비를 이룬 가족에게는 외식상품권 등을 선물로 주어 그 기쁨을 더했다.





01.02 훈련 중인 선수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

03.04.05 다목적구장에서 T볼을 직접 배우고 해보며 즐거워하는 모습

06 심재학 코치와 강귀태 선수가 등장하자 아이들이 환호하고 있다.


07.08 경기 후 줄을 서서 사인물을 받는 아이들



### PM 03:00 Oh! My Star~

기본적인 연습이 끝난 후에는 배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진짜 야구게임이 시작됐다. 이날 어린이들의 야구게임을 지도하기 위해 넥센 히어로즈의 심재학 코치와 강귀태 포수가 직접 다목적구장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인사하는 선수와 코치를 보며 “우와~ 연예인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를 외쳤다. 밝은 미소로 아이들과 게임을 즐기며 야구의 룰을 알려주고, 1:1 코칭에 나선 선수와 코치는 어린이들이 꼭 자신들의 조카 같으며 오늘 이렇게 직접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참 뜻 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강릉에서 가게 문까지 닫고 서울로 달려왔다는 최경순 사장은 멋진 하루를 만들어준 넥센타이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들인 최동령 어린이가 현재 초등학교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중에 꼭 강귀태 선수같이 멋지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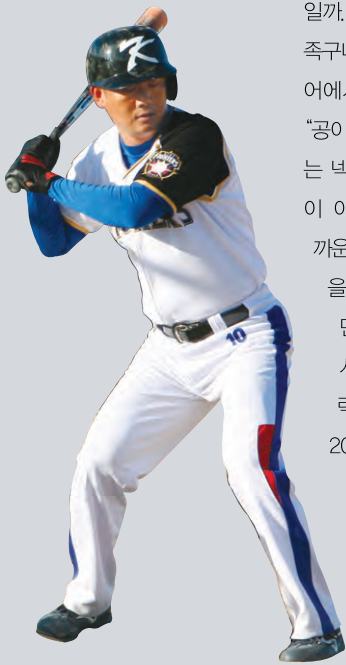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선수들과 코치의 사인회도 열렸다. 선물로 받은 모자와 야구공에 사인을 받은 아이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즐거워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양분이다.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든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평생 이야기할 추억거리를 만들고 넥센 히어로즈의 파이팅을 지원했다. 짧은 겨울 해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내년 시즌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넥센타이어 노조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모토로 사우들의 체육활동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 공터에 모여 족구나 배구를 즐기는 모습이 넥센타이어에서는 낯설지 않다. 여럿이 모이면 “공이나 한번 찰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넥센타이어 사우들. 비단 동호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우들에게 스포츠는 가까운 친구같은 존재다. 이런 멋진 실력을 갈고 닦기만 하고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노조에서는 그간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0 노조위원장배 친선 야구대회와 친선 등산대회가 바로 그 것. 특히 2010년은 넥센타이어 사우들이 프로급 선수들을 꺾고 각종 스포츠 대회를 석권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 2010 노조위원장배

스포츠를 사랑한 넥센인의 2010

## 친선 야구대회 & 등산대회

넥센타이어는 스포츠에 유난히 강하다. 따로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와 취미, 친목 활동이 전부인데도 대회만 나갔다면 우승은 떼놓은 당상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을 가진 넥센타이어 사우들. 사우들의 스포츠 사랑을 모두 풀어 놓자면 페이지가 모자랄 지경이다. 넥센타이어 사우들이 뛰고 구르고 즐기는 스포츠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정준옥 대리 노사협력팀  
이시목 PCR파트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양산시 부산대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배 친선 야구대회. 총 150명 10개 팀이 사내 부서별 야구의 활성화와 화합을 위해 모였다. 원래도 사내에만 10개가 넘는 야구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그 밖에도 지역 사회인 야구단 활동 등 야구 사랑이 각별한 넥센타이어 사원들이지만, 특히 2010년은 넥센 히어로즈와 메인스폰서십을 맺으며 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해라 출전한 선수들의 실력도 마음도 지난해에 비해 한층 성장했다.

예선전부터 접전을 벌여 마치 결승전을 미리 보는 듯 멋진 승부를 보여주더니 대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였다. 치열한 승부가 거듭된 가운데 11월 26일 결승전이 개최됐다. 결승에 올라온 팀은 품질검사팀과 가류팀으로 대회 내내 치밀한 전략과 빠른 스피드로 경기를 주도했던 팀이다. 경기 초반 투타균형을 이루며 상대의 허점을 노리던 두 팀. 그러나 품질검사팀 도승화 선수의 선전으로 가류팀의 타선이 무너져 5회 16:4로 품질검사팀이 우승을 가져갔다. 시상식에서 이성경 노조위원장은 “매년 발전하는 사원들의 실력에 감탄하게 된다”며 “이번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덕에 즐거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에는 경남 양산 천성산으로 사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제1회 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배 친선 등산대회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대회 추진위원인 이득기 직장은 등산의 매력이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산을 타고 느끼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01



02

01 승리의 기쁨을 행가레로 표현하는 선수들

02 결의를 다지며 화이팅을 외치는 등산대회 참가자들



#### 넥센 스포츠 동호회 승전보

2010년은 유난히 넥센타이어가 스포츠에 강세를 보였던 해이다. 축구 동호회는 울산 시 스포츠파크에서 벌어진 임페리얼컵 FC 챔피언십 2010 부산·울산·경남권역대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우승컵을 차지했고, 야구 동호회는 봄·여름 양산시협화장기와 생활체육대회에서 모두 준결승을 차지했다. 가을에는 축구 동호회가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축구대회에서 3위를, 한국노총배 경남지부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볼링, 족구팀 등 총 3개 팀이 선전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노동조합 주최 산악회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남녀 구분 없이 5인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단체전으로 홍릉사 주차장에서부터 원효암, 화엄벌, 홍릉사를 거쳐 다시 홍릉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총 3시간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품질검사팀은 가장 먼저 들어온 점 외에도 초보 팀원을 훌륭히 이끈 점 등에 추가 점수를 얻어 1등을 가져갔다. 그 밖에도 뛰어난 협동심을 보여준 정련파트 팀과 즐겁게 산을 탄 PCR파트 팀은 각각 2, 3등을 수상했다.

비록 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지만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고 함께 하는 시간과 산행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체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팀원과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바탕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올해 첫 테이프를 끊은 노조위원장배 친선 야구대회와 친선 등산대회. 사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넥센타이어와 노조의 마음에, 뒤에서 무수히 많은 땀방울을 흘린 노사협력팀의 마음이 모여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넥센타이어와 노조는 앞으로도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련 대회를 주관하고 동호회 활동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⑩







# 동그란 나무 바퀴, 물레바퀴에서 대중교통이 되기까지 마차의 시대를 열다

우리가 누리는 바퀴의 편리함이 오늘날처럼 진화하기까지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 물레의 바퀴에서부터 마차와 기차, 타이어까지 지난 수천 년간 바퀴가 달려온 역사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글 박진희 교수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바퀴는 달린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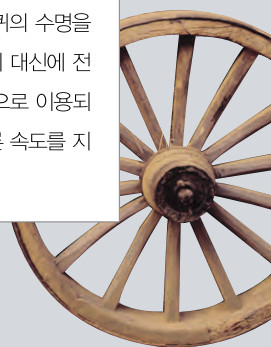


너무나 익숙해져서 발명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는 것 중의 하나는 바퀴가 아닐까 싶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장바구니나 여행 가방에 달린 작은 바퀴 덕에 짐의 무게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해준 것도 철도와 자동차 바퀴라고 할 수 있다. 바퀴의 역사를 정리한 한 역사가는 바퀴야말로 자연을 모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발명품에 속한다고도 하였다.

## 노새보다 불편했던 바퀴의 탄생

인류 역사에 바퀴가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 기록에 의하면 바퀴의 원조는 곡식을 담은 도자기를 빚는 물레바퀴였다고 한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그런 돌이 기원전 4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곡식 용기로 쓰인 도자기를 빚는 물레바퀴로 쓰였다고 한다. 짐을 싣는 수레의 바퀴가 등장하는 것은 이보다는 1000년이 더 지난 기원전 3500년경이었다. 남부 폴란드에서 진흙으로 빚은 수레 모형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원판형 바퀴가 달려 있었다. 이 무렵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중앙 유럽 문명권에서 나무로 만든 둥근 원판형 바퀴가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판형 바퀴에 홈을 내어 막대를 끼우고 그 위에 짐을 싣을 수 있는 상자를 얹은 수레가 등장했던 것이다. 바퀴 달린 수레는 썰매 모양의 날을 이용한 이전의 짐수레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짐을 나를 수 있게 해주었다. 소와 당나귀, 노새 목에 줄을 매어 수레를 끌게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발명품은 당시에는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 수레바퀴는 툭하면 진흙탕 길에 박혀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에 걸린 줄을 이용해서는 아무리 힘이 센 소도 바퀴를 흙탕에서 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 수레보다 당나귀나 노새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했다.

고대 문명권에서 바퀴의 진화를 이끌었던 것은 전차였다. 기원전 2200년 무렵부터 전차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리아 왕조는 전차를 이용해서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나귀가 끄는 바퀴가 넷 달린 전차에 두 명의 전사가 올라타 전장을 누비었다고 한다. 기원전 1500년경 그리스에서 제작한 전차에는 원판형 바퀴 대신에 네 개의 바퀴살이 달린 바퀴가 등장하였다. 원판형 속을 파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바퀴살 바퀴 덕분에 전차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 이어 영국 켈트족은 바퀴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바퀴에 철로 된 테두리를 두르기도 했다. 한편, 말을 길들일 수 있게 되면서 느려터진 나귀 대신에 전차에는 빠르고 근력도 센 말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전차는 경주나 기념 행진용으로 이용되어 성대한 행사에는 10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차 경주 덕에 바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진화해갈 수 있었다.



## 모든 마차는 로마로 향한다

바퀴의 새로운 쓰임새를 알려 준 수레는 그리스-로마 시대 이전만 해도 곡식 등을 나르는 짐 수레였지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축 늘어진 노인이나 병자들을 이송해야 할 때 사람들은 수레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레 위에 나무 기둥을 사방으로 치고 그 안에 병자나 노인을 태우면 훨씬 안전하게 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소위 수레마차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등장한 이 수레 마차는 두 개 혹은 네 개 바퀴가 달려 있었고 노새나 말의 목에 걸린 멍에로 끌게 되어 있었다. 사람을 태우는 나무 기둥 상자는 바퀴 축 위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곳에 타 있는 사람은 울퉁불퉁한 길 위를 지날 때 받는 충격을 자신의 엉덩이로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목에 멍에를 한 말은 속도를 내려하면 목이 조여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불편하고 느려터진 이 수레 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 노약자나 병자들뿐이었다.

수레 마차가 여행용 수레 마차로 진화하게 되는 것은 로마제국의 번영과 더불어 시작된다. 로마가 이룩한 위대한 기술적 업적인 로마 도로가 탄생하면서 수레 마차가 여행자들의 운송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은 자신들의 속국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대신에 로마에서 속국들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하여 필요할 때 빠르게 군대를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들 도로는 말이 끄는 전차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군대의 잦은 이동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야 했다. 이런 군사 도로 목적에 맞추어 로마 엔지니어들은 당시 어느 문명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배수로를 갖춘 포장 도로 기술을 개발하였다. 자갈, 바위 부스러기, 석판을 이용하여 비가 와도 질척거리지 않고 전차 바퀴가 빠지는 일이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도로는 유럽 전역으로 9만km에 달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다.

이들 도로의 완성은 여행용 수레마차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로마 도로 위를 달리는 뿔개 달린 여행용 수레 마차는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행객이 앉는 좌석도 바퀴 축과 떨어져 있어 엉덩이에 가해지는 충격도 덜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마차의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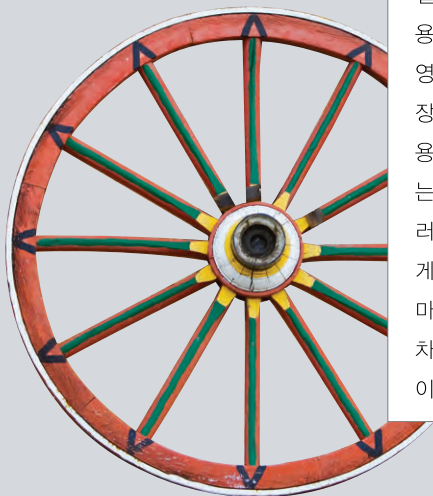
### 마차의 대중교통 시대

말이 끄는 마차가 탈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말의 사육 문제였다. 로마 시대만 해도 말을 먹일 귀리와 같은 곡식 생산량이 적어서 대량으로 말을 사육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말은 전차에나 이용되었을 뿐 여행용 수레 마차에까지 이용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8~9세기 무렵 삼포식농법이 정착하여 귀리 생산이 늘게 되면서 바뀌었다. 유럽에서는 소 대신에 말이 농경에 이용되기 시작했고 마차에도 말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멍에 대신 어깨에 걸치는 마구도 발명되어 몸 전체로 수레를 끌 수 있게 되면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수레의 무게도 늘어나게 되었다.

수레 마차에 말이 이용되게 되면서 마차의 속도가 개선될 수 있었다. 한편, 마차의 덜커짐으로 인한 불편함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다. 마차 몸체와 여행객이 타는 객차를 가죽 끈으로 연결하게 되어 충격 흡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마차는 본격적인 이동 수단으로서의 외연을 갖추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용자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10세기만 해도 마차는 수레 마차의 처음 용도에서처럼 노인, 여성이나 아동과 같이 연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용감한 중세 기사들에게 마차를 타는 일은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독일의 한 영주는 신하들에게 마차 타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켰을 정도였다. 마차가 탈 것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런 문화적 장애도 극복해야 했다.

용수철 등의 발명으로 마차 승차감이 더욱 좋아지고 앞서 문화적 장애도 서서히 극복되면서 중세 후기부터 마차는 신분 높은 귀족의 탈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6세기 중반에는 호화 의장 마차까지 등장하였다. 귀족과 아울러 금융업 등 사업 종사자들이 마차의 새로운 이용객으로 등장하면서 마차는 일반 탈 것으로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된다. 17세기 초 영국에서는 지금의 택시처럼 일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마차가 생겨났다. 런던을 중심으로 4륜 마차 회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7세기 말에는 승객을 태우고 정해진 도로를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 옴니버스 마차도 등장하게 되었다. 즉, 마차의 대중교통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마차의 시대와 더불어 바뀌는 탈 것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㉞





## 힘은 세지고 더욱 알뜰해진

뛰어난 연료 효율과 친환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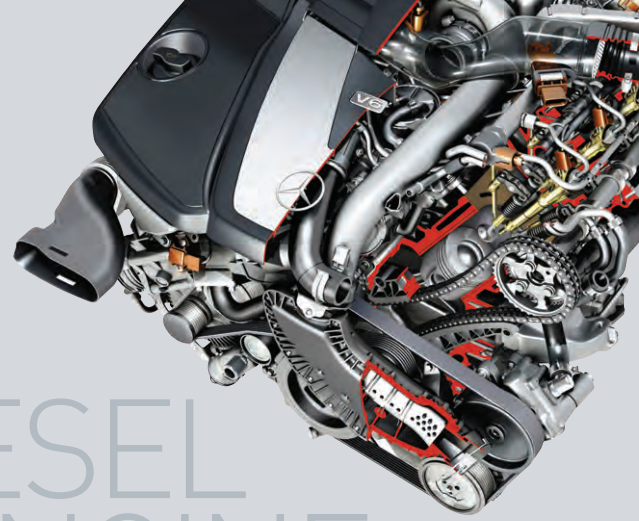
## 디젤 엔진이 달라졌다

커다란 소음과 진동으로 '트럭용'이란 이미지가 강했던 디젤 엔진이 달라지고 있다. 승용차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고급 세단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크게 줄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디젤 엔진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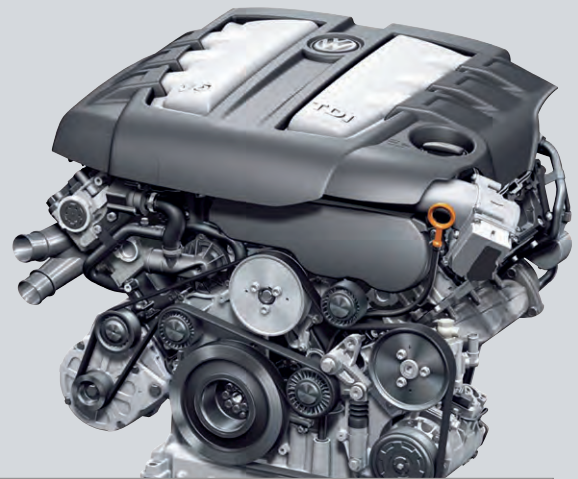
글 김준형 기자 경제신문 <이투데이>







# DIESEL ENGINE



플래그십이란 해군 전단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는 지휘선을 의미한다. 깃발을 높이 세워 전단의 존재를 알리는 이들은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존재의 당위성을 알린다. 자동차 메이커에게 플래그십이란 최고급 세단을 의미한다. 대배기량 고성능 엔진을 오롯이 엮고 첨단 장비와 화려함을 가득 담고 있다. 이들은 판매를 높여 회사의 배를 불러주 기보다 소수의 '슈퍼리치'를 타깃으로 삼는다. 동시에 '우리도 이런 차 만들 수 있어'를 내세우며 이미지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렇듯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세단은 디젤 엔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었다. 조용하고 인락 한 이미지가 가득한 고급차에 털털거리는 디젤 엔진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그랬다.

## 가솔린 대비 친환경성 돋보이는 디젤

디젤 엔진의 라인업 확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만큼 기름값이 비싸기로 이름난 유럽은 디젤 승용 차가 전체의 40%를 넘어서 지 오래다. 유럽시장에서 디젤 모델이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그만큼 발달한 디젤 기술 이 있다.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디젤 기술 발달이 맞물린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디젤 승용차 출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디젤 엔진은 기본적인 단 점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가솔린 엔진보다 다양한 장점을 지니게 되었다.

가솔린 엔진 대비 디젤 엔진의 장점은 크게 친환경성과 연비와 내구성, 성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디젤 엔진은 우리 의 선입견과 달리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최근 디젤 엔진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매연과 분진이 많고 시끄러우며 진동이 크다'는 선입견을 대부분 떨어냈다. 커먼레일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할 때 고압분사가 가능 해졌고, 그 덕에 소음과 진동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 AUDI

## 아우디 A8 4.2 TDI 콰트로

8년 만에 새로 출시된 아우디 뉴 A8은 지난 G20 정상회의 의전차로 활동하면서 국내 신고식을 치렀다. 새 모델은 V8 4.2 가솔린 모델을 먼저 국내에 선보였고 차후 디젤 모델도 추가할 계획이다. 벤츠나 BMW가 6기통 3,000cc급 디젤을 선보인 것과 달리 아우디는 V8 4,200cc급 디젤 엔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고출력은 독일 기준으로 326마력,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고작 6.4초 만에 끊는다. 국내에 수입됐거나 수입될 플래그십 디젤 세단 가운데 가장 고성능을 자랑한다. 가격은 미정이다.



# BMW

## BMW 730d

BMW 7시리즈 역시 국내에 디젤이 수입된다. 디젤 엔진을 얹었지만 BMW 특유의 다이내믹한 운동성능은 고스란히 이어졌다. 안전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움이 모두 결합된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다. 직렬 6기통 3,000cc 커먼레일 직분사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엔진에 2개의 터보를 더해 최고출력은 245마력에 이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2초 만에 도달한다.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최고시속 245km까지 달린다. 가격은 730d가 1억1,990만 원, 차 길이를 늘린 730Ld가 1억3,550만 원이다.

나아가 배기가스도 정화됐다.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보다 친환경적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같은 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비해 약 40% 적게 배출된다. 다만 경유의 특성상 연소된 이후 배기가스에 분진이 포함되는 일이 많았으나 디젤 파티클 필터 DPF가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분진은 배기 시스템에서 걸러진다. 따라서 필터에 쌓인 분진은 암모니아를 통해 정화된다. 최근 등장하는 커먼레일 디젤차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 것도 DPF 효과 때문이다.

최근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는 순수하게 전기모터의 동력을 이용하고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접목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식이다. 최근 등장하는 디젤차는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은 물론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버금가는 친환경성을 지녔다.

## 뛰어난 연료효율과 힘으로 각광

디젤엔진은 동급 배기량 대비 출력과 연비에서도 가솔린 엔진을 앞선다. 연소효율이 높아 같은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보다 연비가 좋다. 프랑스 푸조의 1.6 HDi(디젤) 엔진은 1리터로 21km를 넘게 달릴 수 있지만 비교적 연비가 높지 않은 국내 현대차는 직분사 방식의 1.6 GDi 엔진이 1리터에 16.5km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메이커도 비슷한 수준이다. 성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됐다. 같은 서킷을 24시간 동안 달리며 레이스를 펼치는 프랑스의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최근 5년 내 1등을 다했을 메이커는 독일 아우디와 프랑스 푸조다. 당연히 두 회사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레이싱 카를 출전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젤의 우수성이 입증된 실험이 2008년 치러졌다. 현대차 i30 디젤과 가솔린이 경합을 벌인 결과 디젤이 압승을 거뒀다. 같은 서킷을 같은 드라이버가 운전한 결과 가솔린 i30은 디젤 i30을 기록상으로 단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 명의 드라이버가 가솔린과 디젤을 번갈아 서킷을 달린 결과였다.

이렇듯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가솔린 엔진의 진화는 그 끝에 다다랐지만 디젤 엔진의 진화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많다. 기름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친환경성이 더욱 대두될수록 디젤 엔진에 대한 관심도 비례해 커질 것이 당연하다.

PREMIUM



## Mercedes-Benz

### 메르세데스-벤츠 S 350 CDI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인 벤츠 S-클래스는 디젤 모델에 대한 선입견은 일찌감치 깼다. S-클래스 디젤은 V6 3,000cc CDI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235마력을 낸다. 순발력을 좌우하는 토크는 비교적 낮은 회전영역인 1,600~2,400rpm에서 뿜어져 나온다. 여기에 맞물린 7단 자동변속기는 높은 효율을 뽑아내 2톤이 넘는 차 무게를 지녔음에도 1리터당 11.8km의 높은 연비를 기록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7.8초,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제한한다. 국내 판매 가격은 1억2,500만 원이다.



## Volkswagen

### 폭스바겐 페이톤 V6 TDI

폭스바겐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처음 선보인 고급차가 페이톤이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V6 3,000cc TDI 엔진을 얹은 디젤 모델이다. 가솔린 못잖은 정숙성에 깜짝 놀랄 만한 토크를 담고 있으며 4륜구동 시스템과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 주행안정성도 뛰어나다. 최고출력 240마력은 1,500~3,000rpm의 넓은 실용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237km/h에 이르며, 공인 연비는 1리터당 9.9km다. 가솔린 엔진을 얹은 뉴 페이톤 V8 4.2 롱 휠베이스 모델은 1억3,790만 원인 반면 가장 인기 있는 V6 3.0 TDI 모델은 9,130만 원이다.

## BRAND

### 디젤 엔진 품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4인방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4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역시 자사의 기술력을 앞세운 디젤 승용차를 개발해왔다. 초기 대형트럭을 중심으로 발달한 디젤 엔진은 '커먼레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소형차를 시작으로 승용차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 추세는 2000년대 들어 대형 플래그십 세단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2.0리터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얹은 중형차 정도가 내수시장에 선보이고 있고, 고급차는 2.2리터 디젤 엔진을 얹은 현대 그랜저TG 정도가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제네시스 역시 디젤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고급 세단을 역시 발 빠르게 디젤 세단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최저 9,000만 원에서 최고 1억3,000만 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④

### 디젤 엔진은 해머, 가솔린은 장도리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는 점화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솔린은 휘발유에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을 이용해 점화한다. 반면 디젤은 불꽃 대신 연료를 압축시켜서 폭발력을 얻는다. 연료를 압축하기 위해서 엔진 피스톤의 상하운동 폭이 크다. 반대로 가솔린 엔진은 이 실린더의 상하운동 범위가 좁다. 이 같은 실린더의 상하 운동 범위(스트로크라고 불린다)에 따라 엔진 특성도 달라진다. 디젤 엔진은 롱 스트로크, 가솔린 엔진은 숏 스트로크 엔진이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디젤 엔진은 커다란 '해머'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솔린 엔진은 작은 장도리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르다. 커다란 해머(디젤 엔진)는 한방에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여러 번 그리고 빠르게 칠 수 없다. 반면 작은 장도리(가솔린 엔진)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망치질을 할 수 있지만 큰 힘을 내지는 못한다.

즉, 디젤 엔진은 해머질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못을 박을 수 있지만 가솔린 엔진은 작은 장도리를 여러 번 두들겨야 못을 박는다. 디젤차가 순간적인 급가속 때 매콤하게 튀어나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울산 점유율 50%

타이어뱅크 울산역점

## 아자 아자!

글 허은경  
사진 류병문

인상 좋단 이야기를 몇 번쯤 들어봤을까. 타이어뱅크 울산역점 서왕교 점장과 인사를 나누며 든 생각이었다. 점심을 먹을 틈도 없이 손님을 맞았는지 테이블 위의 점심밥은 말 그대로 찬밥 신세.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반기는 모습에 손님들도 반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좋은 타이어를 싸게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친절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손님들도 종종 이야기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언제 봐도 웃고 있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직원들이 친절해 다시 찾았다는 손님도 계셨죠. 그래서 제가 실없이 많이 웃습니다. 하하하”

울산역점 청년들이 참 괜찮더라는 소문이라도 난 걸까. 유난히 소개로 오는 손님 이 많으니 말이다. 아마도 눈 밝고 복 있는 손님들이었을 것이다. 새해 소원을 묻는 말에 곰곰이 생각하던 서 점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 즉 손님과 직원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넉넉히 인심을 쓴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서왕교 점장 뒤편에는 없느냐고 물으니 조심스레 소원을 꺼내 놓는다. 울산 타이어 시장 점유율 50%. 울산은 공업과 농수산업이 모두 발달한 도시고 샐러리맨도 많아서 다른 도시에 비해 경기가 좋다. 조건이 좋은 곳이니 기회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될 생각이란다. 힘찬 2011년 출발을 위해 직원들과 파이팅도 외쳤다.

“기본에 충실하고 단단한 실력을 키우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든 뭐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점유율 50%, 할 수 있습니다!”

손님 행기라, 매장과 직원들 행기라 바쁜 서왕교 점장. 정작 서른셋 훈기 짝 찬 노총각 걱정은 쏙 빼놓았다. 2011년에는 나눠 준 인심만큼 커다란 복 꼭 돌려받으시길 빈다. ㉞



# TIRE BANK

타이어뱅크 울산역점

경남 울산시 남구 삼산동 217-11번지 tel. 052-267-9876



1st  
Green  
Story

# 자연에서

배우다

놀다

만나다

맛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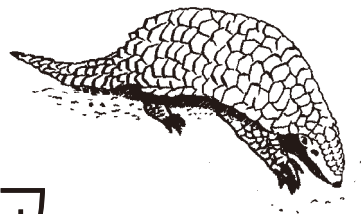
붉은 꽃송이가 통째로 툭,  
동백나무



차나무과의 늘푸른붉은잎 낮은나무 Camellia japonica

눈도 녹지 않은 1월, 동백은 식용에도 이랑곳없이 새빨간 연지를 마르고 다칩니다. 희색빛 음울한 겨울 숲  
잠정이 붉은 동백은 마치 초실 속에서 본 듯한 아름답고도 위험한 여인 같습니다. 칠 때도 미련일랑 남기지  
않고 툭 하는 외마디와 함께 낙화하는 동백, 아무리 떨어진 꽃이라지만 시들지 않아 또렷한 얼굴은 쉽게  
뵈을 수가 없지요. 아름답지만 위험한 그 여인 만나러 가시거든 발걸음 살피며 천천히 걸어도 좋겠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 도마뱀을 모방하고 물총새를 흉내 내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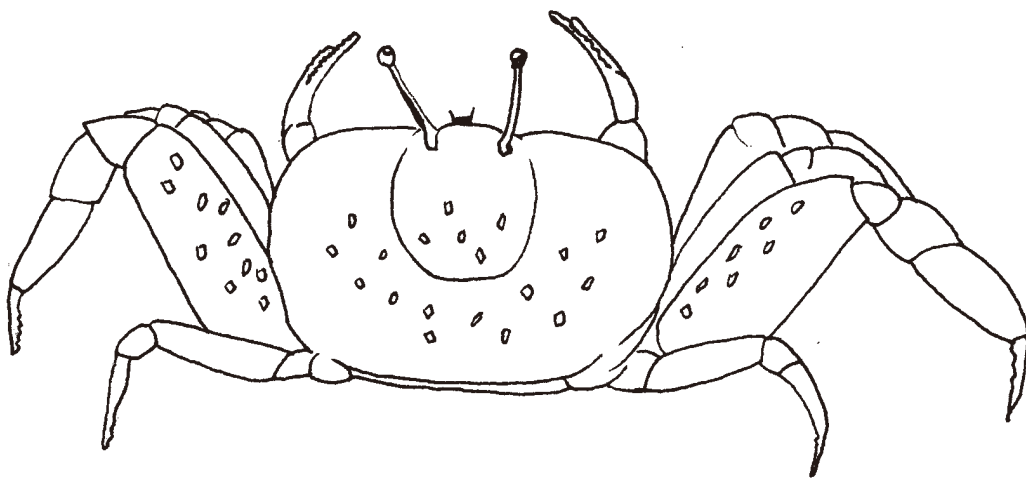
생체모방

자연과 문명.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듯 아득한 두 개의 단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눈치 챌 수 있다. 특히 기술문명은 재주 좋게도 점점 자연을 모방하고 있다. 자연이 겪은 오랜 시간과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생체모방(Biomimicry)이라고 부른다.

글 김홍일

월간 디자인네트 편집장

아트디렉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신이라는 존재는 최초이자 최고의 디자이너일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동식물은 오랜 시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며 진화해 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두 손이 자유로워진 이후 다양한 도구를 발명하고 사용해 왔다. 문명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인간이 만든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는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모방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식물에서부터 동물, 곤충 등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다.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를 전후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기능과 함께 형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지금도 매일 작은 생활용품에서부터 크기가 큰 운송수단까지 좀 더 효율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추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 자연에서 배우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중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주얼리는 동식물이나 곤충의 형상을 본뜬 형태가 여전히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모양을 그대로 차용한 것도 있지만 응용을 통해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은 어류나 조류의 유선형을 응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소음을 줄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처럼 단순히 장식의 요소로만 사용되던 자연의 형태가 이제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체모방(Bio mimicry)'이라는 분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생명(Bio)'과 '모방, 흉내(Mimesis)'의 그리스어 합성어인 '생체모방' 분야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나 기능의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체모방'이라는 분야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응용한 작업은 이미 오

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

국의 <파퓰러 사이언스

(Popular Science)>지

가 발표한 '20세기 인류

의 일곱 가지 발명품'에도 포함된 '벨크로(Velcro), 일명 '찍찍이'다. 도깨비풀 같은 가시가 있는 식물이 옷과 개의 털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발명했다고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삭기는 게와 사마귀의 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사례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연의 형태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생명(Bio)'과 '모방, 흉내(Mimesis)'의 그리스어 합성어인

'생체모방' 분야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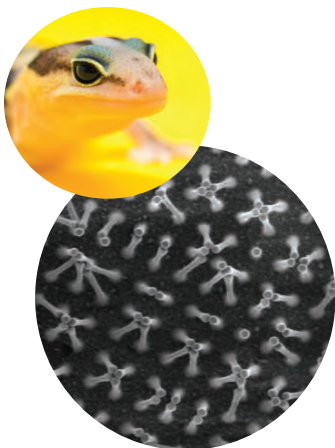
기능의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참조 : 게코테이프 [nanotechweb.org](http://nanotechweb.org)  
에어레이 [blogar.zag.ne.jp](http://blogar.zag.ne.jp), 천산갑가방 [www.tuvie.com](http://www.tuvie.com)



먼저 자동차, 비행기, 열차 등 운송수단은 자연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분야다. 그 중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고속열차인 '신칸센'은 시간당 320km를 주파하는 속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초기 모델에는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기압의 변화로 매우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데, 엔지니어들은 물총새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물총새는 먹이 사냥을 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물속으로 다이빙하는데, 이때 높은 속도에도 물이 거의 튀지 않는다. 따라서 물총새의 부리 모양을 모방해서 열차의 앞부분 디자인을 수정한 결과, 소음 감소와 속도 증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독일의 공기압기기 전문회사인 페스토(Festo)가 개발한 차세대 비행선 '에어레이(Air ray)'는 가오리를 모방했다. 바다에서 양 옆으로 크게 퍼지는 가오리 가슴날개의 움직임에서 동력 원리를 착안했다.

루노셋(Lunocet)에서 개발한 '모노핀(Monofin)'도 돌고래 꼬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했는데 카본, 알루미늄, 티타늄 등 첨단소재로 만들어져 물속에서 시속 약 12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된 '수중터빈(Water Turbines)'은 지느러미 돌기의 형태가 물속이나 하늘에서 양력을 증가시키고 항력을 줄여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한 고래의 지느러미 형태에서 착안한 풍력터빈 '웨일파워(Whale Power)'도 기존보다 제품의 성능이 시속 약 27km로 두 배 정도 향상되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에너지기업 바이오파워시스템즈가 개발한 조력 변환 시스템인 '바이오스트림(Bio Stream)'과 '바이오웨이브(Bio Wave)'는 수중에서 고효율의 추진력을 가진 상어, 참치, 고등어 등의 꼬리 구조와 해조류의 움직임을 응용한 것이다. 도마뱀붙이의 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코테이프(Gecko Tape)'는 매우 강력한 접착력에도 쉽게 붙었다 떼 수 있으며,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이를 이용한 로봇 도마뱀 '스티키봇(Stickibot)'을 제작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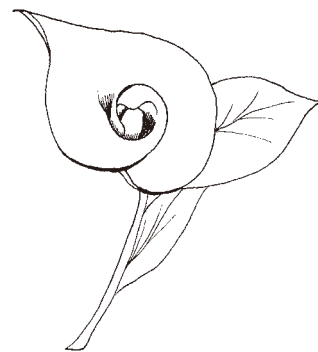


천산갑이라는 동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시클러스(Cyclus)의 '천산갑백(Pagolin Bag)'은 고무(트럭 타이어를 재활용), 나일론,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노트북 등의 내용물 보호를 위한 하드케이스로 사용된다. 지퍼가 없어 개폐가 용이하고 사람의 등에 밀착이 잘 되도록 디자인됐으며, 독특한 형태로 아웃도어나 패션용으로 인기가 있다.

또한, 건축회사 아럽(Arup)이 디자인한 짐바브웨의 '이스트 게이트센터(Eastgate Center)'는 흰개미집의 구조에서 착안해 냉난방에 소비되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아마존 강 유역에 서식하는 모포나비의 바이브런트 블루(Vibrant Blue)에서 착안한 '모포텍스(Morphotex)'는 유기물의 광발색 섬유로 염료나 안료가 불필요하여 염색공정 생략을 통한 친환경적인 소재다. 또한 팩스테크놀로지(Pax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워터 믹서(Water Mixer)'는 물의 흐름과 혼합을 돕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합과 꽃의 나선형 구조를 모방한 디자인이다.

로봇 분야는 인간과 닮은 이족보행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혼다의 '아시모'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엔지니어들은 아톰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각 파트별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거대로봇인 건담은 기술이 발전하면 실제로 가장 구현이 가능한 로봇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로봇도 자연물을 반영한 사례로 아시모와 건담의 디자인은 인체 구조와 유사하게 디자인됐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면에서 보면 영화에서처럼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로봇을 실생활에서 만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물의 형태나 기능을 모방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형태적인 모방에만 그치지 않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능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자연을 참고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물의 형태나 기능을 모방한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형태적인 모방에만 그치지 않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능적

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자연을 참고하고 있다. 가장 진보된 순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모방하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일 것이다. ㉑



# 별이 빛나는 천문대의 밤

겨울밤 아이와

손잡고 떠나는

천문관측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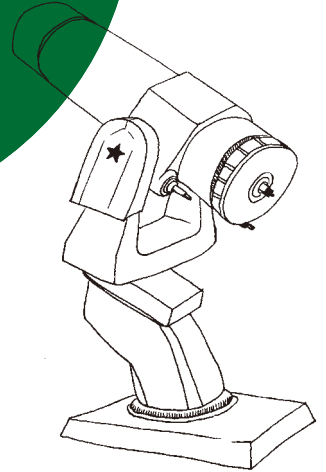
별의 정체가 드러났다. 끈기 있고 고집 센 과학자 갈릴레이는 별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서 별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 범인은 과학자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뿜어낸 오염의 장막이다. 그 너머의 별은 여전히 어른들을 우수에 젖게 하고, 아이들을 꿈꾸게 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오염에 쫓겨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를 찾아갔다. 봉래산에 올라 다시 별을 만나기 위해.

글 허은경  
사진 류병문





# 자연에서 놀다



## 별이 보이는 고요한 정상, 별마로

겨울의 영월은 오후 5시가 되면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한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면 미리 인터넷으로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예약한 이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팔짱을 낀 연인도 있고,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 단체로 온 유치원생들도 있다.

별마로 천문대는 영월 봉래산(해발 800m) 정상에 있다. 높을수록 광해와 기상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별마로는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민천문대 중에서는 가장 큰 지름 80cm의 주망원경과 10대의 보조망원경을 갖췄다.

산 위에는 천문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니 관측이 시작되기 전 읍내에 내려가서 든든히 저녁을 먹고 올라와야 한다. 겨울철엔 두툼한 옷도 잊어선 안 된다. 추위가 고생스럽지만 습도와 먼지가 적어 대기가 안정적인 겨울밤은 별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때다. 여름철에는 잘해야 한 달에 6~7일 정도밖에 별을 관측하기 어렵다.

저녁 7시, 관람객들을 천체투영실로 부르는 방송이 나온다. 우산처럼 둥근 천정이 있는 방 안에는 뒤로 눕힐 수 있는 의자들이 중심을 향해 동그랗게 놓여 있다. 모두 자리를 잡고 눕듯이 앉으니 불이 꺼졌다. 눈이 어둠에 적응할수록 둥근 천정에 떠오른 별들이 선명해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와” 하는 탄성을 터트린다. 밤하늘을 직접 바라보는 듯하다.

오퍼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진다. 방위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찾기, 별자리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흥미롭게 펼쳐진다. 누군가의 질문에 기계를 조작하자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반구에서 볼 수 없는 남반구의 별자리가 펼쳐진다. 어른도 흥미롭게 보고 들을 만하다.

북극성과 남극성을 제외하고는 밤하늘의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바뀐다.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오리온자리와 큰개자리, 작은개자리,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쌍둥이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별자리를 관찰하려면 우선 그 계절에 가장 밝은 별자리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겨울철 밤하늘에는 별이 풍년이다. 다른 계절보다 유난히 개수도 많고 종류도 풍성하다. 안드로메다은하와 오리온성운, 플레이아데스 산개성단과 히아데스 산개성단 등을 맨 눈으로 볼 수 있다.







### 띠를 두른 목성이 보인다

다음은 10개의 망원경이 있는 주관측실로 이동한다. 스르륵 지붕이 접히자 먹물을 부어놓은 듯한 하늘이 나타났다. 각각의 망원경은 별자리에 맞춰져 있다. 순서대로 돌아가며 하늘을 들여다보면 된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역시 주관측실이다. 지름 80cm의 주망원경은 목성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으로만 보던 목성이 눈앞에 보이자 다들 놀란다. 좀 더 밝을 뿐 다른 별들과 똑같이 보이던 목성이 띠까지 두른 채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우와, 사진이랑 똑같다”며 망원경에서 눈을 떼 줄 모른다. 운이 좋다면 목성주위를 돌고 있는 4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테, 칼리스트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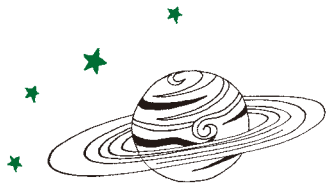
차례를 기다려 목성을 들여다본다. 목성은 이른 겨울 저녁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황토색의 동그란 행성. 검고 희끗한 평행의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인다. 순간 내가 우주에, 태양계에 속해 있

다는 당연한 사실을 놀라 듯 확인한다. 망원경으로 별을 들여다보았는데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체험인 셈이다. 목성은 엄밀히 말해 별이 아니다. 지구나 수성, 금성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의 속해있는 행성으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시킬 뿐.

진짜 별을 관찰해보자. 별은 밝기를 따져 등급을 나누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0등급에서 6등급까지 약 8,000여

개다. 그나마 도시에서는 광해로 1, 2등급 밖에는 볼 수 없다. 겨울철 가장 찾기 쉬운 별자리는 오리온자리다. 밝은 2개의 1등성과 그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늘어선 3개의 별을 이어 사각형을 만든다. 오리온의 베텔기우스와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은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겨울의 대삼각형’으로 불리며 겨울철 별자리를 찾는 길잡이 별로 활용된다.

밤하늘은 어둡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하늘의 본모습이다. 태양의 빛과 대기가 더해져 나타나는 빛의 산란이 사라진 밤은 커튼을 걷어 낸 우주의 참모습이다. 아이와 천체망원경이 있는 천문대로 가보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구보다 더 큰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㉓



올 겨울 밤하늘에서는 목성을 볼 수 있다.

토성은 꽃이 피는 봄에,

화성은 여름 즈음에 망원경에 등장할 것이다.

## 아이와 함께 갈만한 천문대

지역	천문대	프로그램	연락처
양평	국제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당일/1박2일), 전화예약필수, 1인 15,000원부터	031-775-0822 www.ngc7000.co.kr
양평	종미산천문대	개인(주야간/1박2일), 단체(당일/1박2일), 온라인신청서작성, 1인 20,000원부터	070-8826-1955 www.astrocafe.co.kr
일산	어린이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정기/가족체험), 온라인예약, 1인 30,000원부터	031-975-3245 www.astrocamp.net
군포	누리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전화예약필수, 선착순, 체험료 없음	031-501-7100 www.gunpolib.or.kr/nuri
대전	시민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주말별음악회, 단체 전화예약필수, 체험료 없음	042-863-8763 star.metro.daejeon.kr
청양	칠갑산천문대	개인(주야간 일반형), 단체(연령/대상별 맞춤형), 단체 전화예약필수, 1인 1,000원부터	041-940-2790 star.cheongyang.go.kr
영월	별마로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1박2일), 온라인예약, 1인 4,000원부터	033-374-7460 www.yao.or.kr
횡성	우리별천문대	개인(주야간, 가족 방갈로), 단체(1박2일/2박3일) 온라인예약, 1인 15,000원부터	033-345-8471 www.ourstar.net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1인 1,000원부터	033-480-2586 www.ckobs.kr
김해	김해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온라인예약, 1인 4,000원부터	055-337-3786 www.astro.gsiseol.or.kr
양양	반딧불이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1인 2,000원부터	054-680-6045 firefly.yyg.go.kr
예천	천문과학문화센터	개인(주야간/주말캠프), 단체(주야간/1박2일/2박3일), 온라인예약, 1인 2,000원부터	054-654-1710 www.portsky.net
무주	반디별천문과학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온라인예약, 1인 1,000원부터	063-320-5663 www.bandiland.com
곡성	섬진강천문대	개인(주야간), 단체(주야간), 단체 온라인예약, 1인 1,000원부터	061-363-8528 star.gokseong.go.kr

### 천문대가 즐겨워지는 방법

#### ★ 별자리 이야기 알고 가기

수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통일한 것은 1929년이다. 그 전까지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별자리 모양도 달랐다.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 확정된 별자리는 총 88개로 우리나라에겐 50여 개만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별자리에는 고유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4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이름이 이집트와 그리스로 건너가 자신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과 이야기로 태어났다.

#### ★★ 날씨와 예약 확인

천문대는 맑은 날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관측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천문대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미리 기상청에 연락해 날씨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천문대는 보통 밤에 별을 관측하기 때문에 오후 2시쯤 열었다가 밤 10시쯤 문을 닫으니 이것도 알아 두자.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휴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날씨가 추우니 옷도 잘 챙겨 입도록 한다. 단체 관람 예약을 피하는 것도 쾌적한 관람의 방법이다. 미리 천문대에 확인해 방문스케줄을 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측대상이나 이벤트 등을 알아보고 참여하거나, 미리 공부를 해두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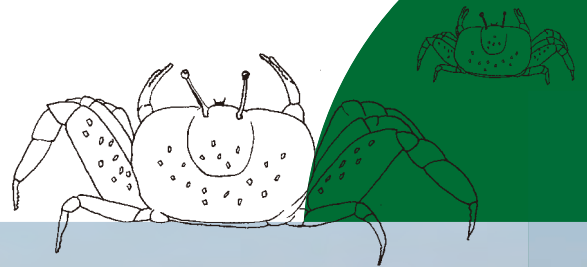
해양문화연구자이자

사진작가

김준 박사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가능한 줄 알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부터 무안까지, 새벽 먼 길을 달려 만난 김준 박사는 그야말로 ‘갯벌’을 닮아있었다. 어쩐지 바닷내음이 전해오는 듯, 묵묵히 몸을 움직여 갯벌을 오가는 갯사람들을 닮아있었다. 그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지 것’인 기자는 그야말로 난생처음 바다를 마주한 달팽이와 같았다.

글 차승진  
사진 이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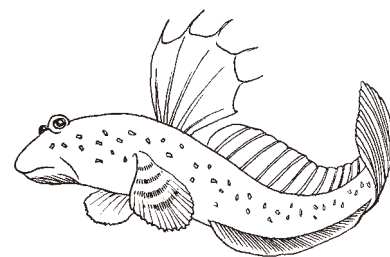
# 자연에서 만나다

44  
45  
HELLO NEXEN



지난겨울, 안면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한 가족의 여행을 스케치하고 글과 사진으로 담는 여정이었다. 하루 종일 안면도 곳곳의 명소를 찾아다녔지만 기억에 남는 건 갯벌 위에서의 한 장면이다. 안면암엔 여우섬과 조구널섬을 잇는 부교(浮橋)가 있는데 밀물 때는 물 위로 떠오르고 썰물 땐 갯벌 위에 놓여있는 다리다. 취재팀과 가족들이 부교 위를 지날 때, 양쪽 갯벌을 유심히 살피던 아이가 뿔을 살금살금 기어 다니는 짱뚱어를 발견했다. 순식간에 제 굴속으로 숨어드는 짱뚱어를 보자 마음이 급해졌을까. 아이는 갯벌에 들어가 몇 번 실랑이를 하더니 금세 짱뚱어를 잡았다.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새에 반한 아이가 요리조리 손을 옮겨가며 장난을 치자 옆에 있던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짱뚱어가 신기하지? 이제 다 봤으면 놓아주자. 갑자기 잡혔으니 많이 놀랐을 거야.”



“짱뚱어가 신기하지?”

이제 다 봤으면 놓아주자.

갑자기 잡혔으니

많이 놀랐을 거야.”





## 갯벌엔 갯벌만의 방식이 있다

김준 박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지난 기억이, 그 엄마의 배려가, 그리고 이를 듣고 짱뚱어를 놓아주며 손까지 흔들어 주던 아이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슬며시 기억을 풀어놓는 기자에게 김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마음이 도시민들에게, 갯벌체험을 하러 오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곳 무안에 ‘무안생태갯벌센터’가 세워진 것도 이를 위해서이죠. 몇 년 전 휴게소에서 가슴 아픈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고기, 게, 조개가 반쯤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 죽어버렸다며 울고 있더라고요. 갯벌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봐요. 아이가 계속 떼를 쓰자 아버지가 휴지통에 버리라며, 버럭 호통을 쳤어요. 아이는 잠시 멍칫 하더니 플라스틱 통 통째로 휴지통에 버리더군요.”

키우지도 못할 갯벌의 생명을 그저 장난삼아 잡는 건, 누구의 권리일까. 그는 ‘갯벌을 살리는 건 도시민, 도시민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라 했다. 갯벌을 ‘비효율적인 땅’, ‘언제든 가서 뭐든 먹을 것을 캘 수 있는 땅’이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 어민들과 수많은 생명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그 안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때, 진정한 갯벌을 살리는 바른 길이 보일 거라 믿는다. 이를테면, 이런 길.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농게와 칠게를 관찰하던 때였습니다. 게들이 눈자루를 올리며 경계하는 통에 제대로 살펴보기가 약간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게를 기다리는 건 저 뿐이 아니었어



요. 왜가리 한 마리도 조용히 갯골에 앉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두어 시간 갯벌 생물과 시간을 보내다 갯골로 눈을 돌렸는데, 세상에! 왜가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새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 갯벌의 모든 생명은 그렇게 기다리는 방식으로 먹이활동을 합니다. 갯벌이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선조들도 왜가리처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김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무안 갯벌 위에, 왜가리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미 추워진 날씨에 짱뚱어와 칠게는 제 구멍 속으로 들어갔건만 왜가리는 잠시 구멍 밖으로 나올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와 육지의 시간이 다르듯, 육지의 기준으로 갯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갯벌엔 갯벌만의 기다리는 방식이 있다. 이를 조금씩 여기고 효용성의 가치를 들이미는 건 수 백 년에 걸쳐 이어온 갯벌의 공존원칙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준 박사는 갯벌을 살리는 길은 기다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새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 갯벌의 모든 생명은 그렇게 기다리는

방식으로 먹이활동을 합니다. 갯벌이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선조들도 왜가리처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곳엔 여전히 갯벌이, 그리고 어민들이 있다**

소개가 늦었다. 김준 박사는 벌써 20년이 넘게 섬과 바다를 떠돌며 매주 갯벌을 찾는,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남자다. 꼬막 캐는 할머니, 낙지 잡는 아저씨 곁을 따라다니며 갯사람의 진정한 생활문화를 배우고 틈틈이 사진을 찍어 전시회도 연다. 그동안 〈김준의 갯벌이야기〉,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섬 여행〉, 〈갯벌을 가다〉, 〈대한민국 갯벌 문화 사진〉 등 여러 책을 썼으며, 3년 전부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양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한참을 추려 적어도 한참을

읽어내야 하는 이력이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바로 ‘갯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골소년은 어떻게 갯벌에 빠지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가 진정 제대로 바다를 만나 건 대학생 때였다. 그것도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이 계기였다. 그런데 갯벌이란 곳이 도통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육지갯’인 그가 물때를 알고 있을 턱이 없을 터. 땅은 언제가도 어떤 나무가 자라고 어떤 생명이 크고 있는 지 알 수 있지만 갯벌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아니, 본다 해도 갯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본 게 아니었다. 무작정 갯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갯벌엔 어떤 생명이 사는지, 갯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잡으며 생활하는지, 갯벌의 생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파래와 감태와 매생이를 구분하고, 물때를 가늠해 갯사람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그의 삶 곳곳에 갯벌의 흙이 묻었다. 인생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고 경력을 쌓는 30~40대를 갯벌과 섬에서 보냈으니 그의 삶도 갯벌에 켜켜이 쌓인 셈이다.

“도시인들의 눈엔 갯벌이 늘 똑같아 보일 지도 모르지만, 전국의 갯벌은 각각 저마다의 다른 모양새

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갯벌에 간다 해도 갈 때마다 매번 새롭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갯벌을 계속 찾는 이유, 갯벌이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글을 쓰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건 그 곳에 여전히 갯벌과 어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에게 갯벌의 의미를 묻는 건 무용하다. 인터뷰 내내 그는 열심히 자신을 설명했지만, 이미 20년을 넘게 지켜온 그의 삶의 방식을 한 두 시간의 만남으로 성급하게 가늠하려 하는 일 역시 무리일 수밖에 없다. 약간의 체념을 안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뿔싸. 아까 그 왜가리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김준 박사가 왜가리를 봤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강처럼 흐르지도, 늪처럼 갇히지도 않는 갯벌만의 방식. 갯벌을 빼닮은, 그를 알아가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갯벌에서의 사진 촬영까지 모두 마치고, 고무장화를 벗어 나란히 세족장으로 간다. 여전히 불박인 듯 그 자리에 있는 왜가리를 보며 세차게 물을 틀어 고무장화의 흙을 털어낸다. 말로 쏟아내지 못한 기자의 속절없는 미련까지도. ㉞



# 굴의 면 麵麵麵

요리&스타일링 박웅일(Stylish yong)  
어시스트 남경현  
사진 이용관

쫄깃한 면발과 뜨끈한 국물 속에 굴이 풍당.  
맛 좋고 영양 좋은 우윳빛깔 굴의 면면을 소개한다.

## 착착 감기는 감칠맛, 굴올리브스파게티

### 준비하기

간 굴 200g, 스파게티면 320g, 칠리고추 4개, 올리브 60g, 올리브유 4큰술, 간마늘 2큰술, 파르메산 치즈가루 2큰술, 소금·통후추 약간, 물 적당량

### 만들기

- 냄비에 물을 붓고 끓으면 스파게티면을 넣어 8분 정도 삶는다.
- 굴은 연한 소금물에 흔들어 씻고 마늘은 얇게 편 썰기 한다.
-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칠리고추를 넣어 볶은 후 굴과 올리브유를 넣어 다시 볶는다.
- ③의 팬에 ①의 스파게티면을 넣어 볶는 도중 소금과 통후추로 간한다.
- 조금 더 볶은 후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뿌려 낸다.





뜨끈뜨끈 시원한 맛, 굴채소우동탕

#### 준비하기

간 굴 240g, 우동면 400g, 양파 1개, 청·홍 피망 각 2/3개, 국간장 4큰술, 녹말물 4큰술, 참기름 2큰술, 다시마국물 4컵, 소금·통후추 약간, 물 적당량

#### 만들기

- 냄비에 물을 붓고 끓으면 우동면을 넣어 살짝 삶아 건져둔다.
- 양파와 피망은 깨끗이 씻어 굵직하게 채 썰고 굴은 흐르는 물에 소금을 넣어 깨끗이 씻는다.
-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②의 채소를 넣어 볶은 후 다시마국물을 부어 푹 끓인다.
- ③의 팬에 ②의 굴을 넣어 좀 더 끓인 후 국간장을 넣어 간을 한다.
- 소금과 후추로 모자란 간을 하고 녹말 물을 넣어 잘 풀은 후 불에서 내린다.







## 카사노바의 굴



**굴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음식이다.** 좋아하는 이들은 겨울이 반가운 하나의 이유가 되고 꺼리는 이들은 냄새 맡기도 괴로운 존재다.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수야 없는 일이지만 굴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못 먹어서 아쉬워질 정도로 अच्छ다.

날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서양에서도 굴만은 예외다. 생굴을 사랑한 대표주자로 알려진 사람은 카사노바. 아침마다 생굴 50개를 먹고 연인과 사랑을 나누었다고 한다. 굴속에 풍부하게 포함된 아미노산과 아연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한다. 그렇다고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속담에 배 타는 어부의 딸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은 하얗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분과 칼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안색을 밝게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



**굴은 겨울이 제철이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따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의 굴이 맛있다. 여름에도 굴은 있지만 상하기 쉽고 달이 심해 예로부터 보리가 패면 굴을 먹지 말란 속담도 있다.

굴은 날로 먹기도 하고 여러굴처럼 숙성시키기도 하고 혹은 구이나, 전, 국밥처럼 다양하게 요리해 먹기도 한다. 굴은 면과도 잘 어울리는데 면은 굴의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완하고, 굴은 면에 없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태고 소화를 돕기도 한다. 여기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더욱이 굴의 감칠맛이 쫄깃한 면과 어우러지면 입안의 풍미를 사로잡는 한상의 궁합을 이룬다.

신선한 굴은 껍질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다. 갇힌 굴은 색깔이 전체적으로 우윳빛깔이며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고 만졌을 때 단단해야 선도가 좋다. 2일 이상 오래 보관하지 못하므로 오래 두지 말고 먹어야 한다. 또, 굴을 씻을 때는 연한 소금물에 흐르듯 두세 번 씻어내야 향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껍질째 샀을 때는 강판에 간 무즙에 담가 휘휘 저으면 껍질이 쉽게 떨어진다. ④



# 철인의 꿈, 타이어테크 광주 금호점 철인의 레이스

| 글 차승진  
사진 이용관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면 되겠다. 타이어테크 광주 금호점이 위치한 쌍촌동은 총 성 없는 전쟁터라 부를 만하다. 작년 말부터 대형 타이어전문점이 줄줄이 문을 열기 시작, 이제 반경 3km 내에 10개의 업체가 경쟁 중이다. 그 중 규모가 가장 작은 타이어테크 금호점은 경쟁 가게에 에워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금 금호점에서 매 순간 다시 쓰여지고 있다.

2005년부터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8년 9월 타이어테크 금호점을 오픈한 주동현 사장.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다리품 팔며 홍보하는 일도 아끼지 않던 그에게 돌파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렸다.

“일요일마다 민간인 봉사단 형식으로 운영되는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구조대 기초보강훈련으로 달리기를 하다가 지금은 마라톤도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면 인간적으로 빨리 친해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서로 하는 일도 알게 되니 가게를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운동과 봉사도 하고 매출도 늘어나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2010년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의 ‘철인3종경기’를 완주했다는 그는 2011년 새해소망으로 단연 ‘제주국제철인3종경기’ 완주를 꼽았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풀코스, 말 그대로 철인의 레이스다. 뛰어본 자만이 진정 그 매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운동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일단 경기에 나선 이상, 혹여 늦을지언정 꾸준히 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 대형매장 틈에서 금호점을 꾸준히 이꿀 수 있는 힘도 여기서 기인한다. 인생이란 경기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결승점을 향해 달릴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뻑니다. 오랏동안 바라왔던 꿈이자, 나를 위한 레이스이니만큼 꼭 완주할 겁니다.” 









# 최전방 스트라이커

전 공정 자동화 설계하는 설비팀

## 창녕에 서다

지난해 6월 1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생산을 목표로 하는 창녕공장. 이 창녕공장 건설에 온 열정을 다하는 팀이 있다. 세계 10위권 타이어회사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위해 땀 흘리는 일정 속에서도 쉴 새 없이 달리는 설비팀. 창녕공장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류병문





#### 은근과 끈기의 그 남자

손문수 차장님과 함께 정련공정의 설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련공정은 타이어 생산과정 중 가장 많은 부속 설비를 가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설비 및 신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정착, 발전시켜 벡센타이어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설비팀 아재

정진오 대리



황인삼 차장

#### 현장체질 황반장

창녕공장 반제품공정과 이를 하나로 합치는 성형공정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자동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가장 많은 부분인 만큼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도전욕구를 활활 불태워 몸서리쳐지는 성취감을 맛보겠습니다.

#### 폭풍 카리스마

각종 설비자료를 검토하고 팀원들의 교육 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팀원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최첨단 공장, 친환경 공장을 짓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형건 팀장

### 전 공정 자동화, 우리가 책임진다

“공장은 어떤 설비를 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비팀 조형건 팀장의 각오가 대단하다. 전 공정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창녕공장 건설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이다. 원재료 입하부터 타이어 출하까지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는 타이어 공장은 전례가 없어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통 실력과 각오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가시밭길임으로 설비팀 전원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전 공정 자동화는 그저 공정 자체가 자동화된다는 1차적 의미를 넘어선다.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모든 작업은 기록으로 남는다. 지금은 완제품에서 언제 만들어진 타이어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지만, 전 공정 자동화가 가능해지면 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돼 모든 반제품의 정보가 타이어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작



#### 만만찮은 신입

압출, 비드, 준비, 성형공정의 설비를 구성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후 설치 시운전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사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신입사원이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빠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해 “굴러들어온 놈이 타이어 설비 좀 아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대리



#### 친절한 정민씨

황인삼 차장님과 함께 반제품공정과 성형설비, 문성권 차장님과 함께 물류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 만큼 충실히 수행하여 창녕공장을 순조롭게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한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김정민 사원





#### 센스쟁이 우후훗

창녕공장의 카렌다 및 타이어 생산 공정, 검사공정, 물류창고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도입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창녕공장의 가동 및 초기 품질 안정화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권 차장



#### 복고개그의 절대강자

전체 공정 중에서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련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라인으로 구성된 설비들로 상호 간의 연계가 중요해 이를 오차 없이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녕공장의 설비 중 처음으로 가동되는 부분을 맡은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임하겠습니다.

손문수 차장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이는 타이어의 품질향상은 물론, 앞으로의 타이어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전 공정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창녕공장이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그 공정에 들어갈 설비 역시 중요한 것이다.

#### 최고의 엔지니어들, 우리가 뭉쳤다

설비팀은 이런 목표에 맞는 설비를 찾아내기 위해 2009년 11월 팀 구성 이래 전 세계 타이어 관련 설비 자료를 모으고 조사해왔다. 그중에서도 최신 자동화 설비를 추리고, 또 요건과 규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 밖에도 기기 정밀도를 점검하고 생산성을 미리 설계해 보는 등 지난 1년간 설비팀의 이마에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다.

하지만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자부심과 최전

방 스트라이커라는 책임감으로 설비팀은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지친 기색은커녕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할 뿐이다. 이는 앞으로 설비팀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설비 주문이 끝난 지금도 그들은 설 틈이 없다. 주문한 설비를 작업자의 동선에 맞게 인체공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 설비를 놓기 위한 기초 작업과 전기, 물, 오일 등의 유틸리티 작업 역시 남아 있다.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도 더욱 나은 공정을 위해 테스트와 검사는 필수다.

돌맹이 투성이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팀원들이 있기에 설비팀은 이겨내고, 또 나아간다. 세계 제일의 공장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일이 즐겁다는 그들.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한 창녕공장이 세계 제일의 공장이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㉞



#### 돌돌한 살림꾼

손문수 차장님, 정진오 대리님과 함께 정련공정 설비를 맡고 있습니다. 요리는 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듯 타이어도 미싱이 잘되어 좋은 고무가 만들어져야 좋은 타이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내기 사원이지만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최고의 공장으로 불릴 수 있는 창녕공장을 짓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세명 사우



#### 꽃보다 인해

설비팀에서 사무 행정 및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듯 보이지만 기초가 탄탄해야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설비팀원뿐 아니라 넥센타이어 모든 사우들의 꿈이 담긴 창녕공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인혜 사우



# 태현이 미소는 백만불짜리 미소

정려파트 김정용 사우 가족과 함께

글 박수현 인사팀  
사진 류병문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호기심 대왕 태현이와 호시탐탐 장난칠 기회만 노리는 개구쟁이 아빠 김정용 사우. 그리고 이 둘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엄마 이보민 씨까지 세 식구가 때때옷을 차려입고 스튜디오에 나섰다. 찰칵찰칵, 행복한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가족사진 찍는 날〉에서는 사우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예쁜 가족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박수현 인사팀 055.370.5283



## 세상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김정용 사우 가족이 들어서는 순간, 스튜디오가 부산해졌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스튜디오 점령에 나선 15개월 아기 태현이 때문이다. 처음 와본 곳이 당황스러울 만도 하건만 ‘오!’라는 감탄사와 함께 오토바이며 꿈 인형, 자동차를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정작 김정용 사우 부부는 태현이의 그런 모습이 익숙한 듯 태연하다.

“어찌나 호기심이 많은지 새로운 물건이라면 쑥 빠져버려요. 오죽하면 사람도 현 사람보다 새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걸요.”

‘오!’ 소리는 기본이 좋으면 절로 나온다는 태현이의 트레이드마크. 노래가 나오는 꼬마 자동차를 보고 역시나 ‘오!’ 한다. 아빠가 만드는 타이어는 꼬마자동차보다 훨씬 큰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걸 태현이는 알고 있을까? 꼬마자동차를 꼭 붙들고 신기한 듯 만져본다.

촬영을 시작하려는데 아직 태현이의 스튜디오 탐험이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 엄마, 아빠의 비밀무기는 바로 과자다. 과자를

보자 눈이 반짝거리는 태현이. 과자를 따라 아장아장 걷다 보니 어느새 카메라 앞이다.

아빠 김정용 사우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다. 가족티셔츠로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웅기종기 모였건만 왜 이리 어색한지. 설상가상으로 번쩍번쩍 조명이 빛을 내자 태현이는 놀라움에 눈을 떼지 못한다. 어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줘야 할 텐데. 보다 못해 태현이 이모이자 이날의 일일 코디네이터 이현정 씨가 나섰다.

“다들 증명사진 찍어요? 표정이 왜 그래. 태현이 표정이 제일 낫네.”

이현정 씨의 너스레에 부부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 짧고 재밌게 놀아주는 아빠와 절대권력 엄마

휴식시간, 꼬마자동차에 오른 태현이와 아빠가 운전 놀이에 흠뻑 빠졌다. 운전대를 잡은 능숙한 모습에 크면 레이싱 선수를 시켜야 하느냐고 웃는 김정용 사우 부부. 그런데 자동차를 조금 움직이자 태현이는 바로 울상이 되어버렸다. 품은 이미 레



이성 선수 못잖은데, 안타깝게도 겁이 많아 어렵겠다며 부부가 웃는다.

이제는 슬래잡기 시간이다. “깹” 소리를 내며 뒤통뒤통 도망가는 태현과 뒤를 쫓는 아빠. 태현이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평소 아이 아빠가 태현이랑 잘 놀아줘요. 바쁘니까 오래는 못 하지만 매일 잠깐이라도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니까 태현이가 아빠를 좋아해요.”

정작 김정용 사우는 아이와 더 자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날처럼 마음껏 놀아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다시 촬영이 시작됐다. 태현이가 좋아하는 미니피아노 앞에서 엄마 이보민 씨와 태현이가 마주 보며 뽀뽀하는 포즈다. 역시 엄마가 입에 과자를 물고서야 뽀뽀 성공다. 이젠 아빠 차례다. 자동차를 타고 노랫 소리에 맞춰 엉덩이를 요리조리 흔들며 춤

추는 부자의 모습에 스튜디오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태현이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더 좋아하냐는 고전적인 질문에 서로 자기라고 외치는 김정용 사우 부부. 이참에 승자를 가려 보자며 결의에 불타오른다. 각자 스튜디오 한 편에 자리를 잡고 손뼉을 치며 “태현아~”를 애타게 불러보지만 한참을 고민하던 태현이는 과자를 든 이모에게 돌진해 두 사람을 좌절케 했다.

“엄마도 아빠도 너무 사랑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워서 그랬겠죠?”

“아냐, 그저 우리보다 과자가 좋은지도, 아직 어려서 진짜 좋은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애써 훈훈한 결말을 짓는 엄마와 아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처럼 풋풋하고 달콤하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충실하고 태현이와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라는 두 사람. 이날 찍은 사진 속 모습처럼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길 빈다. ㉞



## 수종사에 들러 차 한 잔 하려 했건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애초 우리의 계획은 이랬다. 다산길 1코스를 거슬러 걸기로 하고, 그 시작점은 운길산의 수종사였다. 가파르긴 하지만 어른 걸음으로 30분이면 다다르는 수종사에서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야무지게 다산길을 걸어 볼 참이었다. 그런데 수종사 다실 삼정헌의 문은 꽁꽁 잠겨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맑은 공기만 잔뜩 마신 뒤 천천히 수종사 구경에 나섰다.

수종사는 수양대군으로도 잘 알려진 세조가 세웠다. 12살의 어린 왕이자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 그 죄값을 받은 건지 세조는 평생 피부병으로 고생했단다. 하루는 오대산에서 피부병을 치료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양주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를 따라가니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조는 이곳에 '물종이 있는 절'인 수종사를 지었다.

수종사는 작고 소박하지만 전망만큼은 으뜸이다. 조선조 유학자 서거정은 이곳을 '동방 사찰 중 최고의 전망을 가진 목인 수행지'라고 극찬했다. 양수리와 팔당호가 손에 잡힐 듯 아스라하며, 잦은 운무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낸다.

우리가 들르려던 삼정헌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차를 내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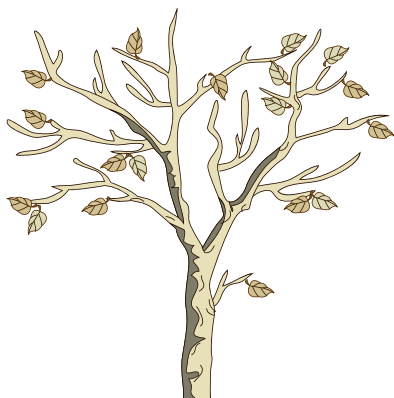


## 옛 철길 따라

김경섭, 박민, 박부현 사우와 함께 걸은 남양주 다산길

## 다산을 찾아가다

글 허은경  
사진 서봉섭



걷기 열풍이다. 걷기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 길을 일 없는 도시생활에 가늘어져만 가는 다리에 기운을 불어넣고, 동시에 앞만 보고 달리던 마음과 눈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는 걷기. 경치 좋은 남양주에 고즈넉한 산사와 옛 철길이 걷기 좋다가에 세 명의 사우에게 동행을 청했다.





01 고즈넉한  
수종사 전경.

02 550년 수령의 수종사  
은행나무 아래서.

03 수종사 가는 길.



수종사의 다실이다. 공중에 떠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 잔 하려 했건만 가는 날이 장날이 되고 말았다. 대신 550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구경하고, 양지바른 절마당에서 해바라기를 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내려가는 길, 동기기간인 세 명의 사우가 앞장을 선다. 아침나절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곧바로 걷기를 시작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발걸음이 가볍다. 뒤에서 바라보니 숲 길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도 정답게 보인다.

### 운길산역 장어를 먹고 기운을 내보자

다시 원점인 운길산역으로 돌아왔다. 이곳에 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다산길로 들어서게 된다. 출발 전 아침부터 산길에 쏟아부은 기운을 보충하기로 했다. 운길산역 앞에는 장어구이를 하는 집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지척인 한강에서 잡은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낸다.

다행히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다는 세 명의 사우와 장어집에 둘러앉았다. 뒷모습만 익숙해진 사우들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듯하다.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절친한 동기간이다. 우선 김경섭 사우를 소개한다. 북부지점에서 근무하는 김 사우는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적은 29세 청년이다. 개구쟁이 같은 밝은 인상에 뽀얀 피부가 소년 같지만 벌써 경력 5년 차의 의젓한 사회인. 동부지점 박부환 사우는 그보다 한 살 위다. 서울 토박이인 박 사우는 움직이는 것이 영 귀찮아 여름휴가도 시내에서 영화를 보며 지냈다는 '도시 남자'. 김경섭 사우가 추천해 열떨결에 따라나왔지만 정말로 걸어 다닐 줄은 몰랐단다. 끝으로 31세 성남지점 박민 사우. 지난 12월 결혼을 했으니 아직 따끈따끈한 새신랑이다. 신부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제발 이르지 말자고 내뱉다. 말은 그렇지만 10년을 만난 아

내에게 편지쓰기를 즐긴다니 말이 무슨 소용일까. 수다를 떠는 사이 노릇노릇 장어가 구워졌다. 아직 갈 길이 머니 알아서 든든히 드시라 일렀다. 다들 차곡차곡 기운을 삼켰다.

우리가 걸을 다산길 1코스는 한강삼패지구에서 시작해 운길산역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거슬러 오르기로 했다. 운길산역이 시작이다. 역에서 강변 쪽으로 조금 걸으면 철로 입구가 나타난다. 사실 다산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개발된 다산길 코스는 8개 구간. 앞으로 5개 구간이 차근차근 문을 열 예정이다.

## 물길 따라, 철길 따라 마재마을 가는 길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빨리 가려고 놓은 철길을 천천히 걷는 기분이 묘했다. 규칙적으로 놓인 침목은 보폭과 어긋나지만 철로 위를 걷는 특별한 경험에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철로가 트레일 코스로 다듬어진 후에는 드문드문 데크와 벤치도 만들어 놓아 쉬엄쉬엄 갈 수 있다. 원래 이 철로를 달리던 기차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2008년 12월 지하철 중앙선 팔당~국수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차가 달리던 팔당역~운길산역 구간은 폐철로가 된 것이다.

기차는 사라졌지만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 남았다. 길은 줄곧 강을 따라붙는다. 휘어졌다가 곧게 펴지고 숲에 가려졌다가 다시 강으로 다가간다. 그렇게 한 시간쯤을 걸으면 능내역에 닿는다.

능내역 앞에서 김경섭 사우가 주저앉았다. 여름엔 조기축구를 하고 겨울엔 스노보드를 탈만큼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어본 지는 언제인지 모른다. 박부훤 사우도 주저앉았다.



01 고향의 풍경을 사랑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 상.

02 다산 정약용 생가  
여유당을 둘러보는 사우들.

일하면서 몸이 많이 붙었다고 했다. 구경도 걷기도 좋지만 체력이 문제다. 박민 사우만 별말이 없어 물으니 이따금 걷기와 등산을 즐긴다고 했다. 아내도 걷기를 좋아해 연애 시절 설악산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단다.

다시 기운을 내 능내역에서 왼쪽 길로 빠져나간다. 철길을 따라 앞으로만 가면 다시 강을 쫓아 팔당역을 향하게 된다. 마을 길로 접어들어 5분쯤 걷다 보면 갈래길이 나온다. 마을회관이 있는 왼쪽으로 길을 잡아 언덕을 넘으면 정약용 생가 팻말이 보인다. 그곳이 일행의 종착지다.

다산 정약용 유적지로 강진의 다산초당이 잘 알려졌지만 정약용이 태어나 자라고 말년을 보낸 곳은 남양주 마재마을이다.



02

## 남양주시 트레일 '다산길'

제주도에 '올레'가 있다면 남양주에는 '다산길'이 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남양주시의 곳곳을 지나간다. 한강과 북한강, 팔당호 등 물길에서부터 운길산, 정약용 생가, 연꽃마을, 폐철도 등 산길과 오솔길까지 다산길을 걸으면 남양주의 아름다운 면면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중앙선 지하철이 개통되며 수도권에서는 지하철로도 갈 수 있다.

1코스 한강나루길(16.7km) 한강삼패지구 - 운길산역

2코스 다산길(14.5km) 도심역 - 마재마을

3코스 새소리명당길(7.5km) 마재마을 - 운길산역

4코스 큰사랑산길(15.4km) 도심역 - 운길산역

5코스 문안산길(17.3km) 운길산역 - 피아노화장실

6코스 마재고개길(6.5km) 피아노화장실 - 소래비고개

7코스 마치고개길(20.3km) 시청 - 가곡은행나무

13코스 시능길(15.2km) 사능역 - 마치고개





다산은 유배생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목민심서를 지었으며 이곳 여유당에서 여생을 마무리했다. 다산은 고향을 두고 “농사도 그리 많지 않고 땀나무는 멀리서 구해야 하지만 한 가지 으뜸은 경지다”라고 했을 정도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했다. 이곳엔 그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생가와 유물관, 문화관이 조성되어 있다.

한적한 여유당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4시에 가까웠다. 10시 반부터 걷기 시작했으니 이래저래 길에서 보낸 시간이 5시간을 넘었다. 사우들과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다.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만큼 여유를 찾은 듯 보였다. 언젠가부터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횟수도 부쩍 줄었고 웃음소리도 경쾌해졌다. 동행이 고마워 다음에 또 함께 걷겠느냐 물으니 역시나 고개를 흔든다. 아직은 천천히 걷기보다 빨리 달리기 편한 청년들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래도 세 명의 사우들 덕분에 다산길 구경 한 번 잘했다. ㉞

기차는 사라졌지만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 남았다.

길은 줄곧 강을 따라붙는다.

휘어졌다가 곧게 펴지고

숲에 가려졌다가 다시 강으로 다가간다.

그렇게 한 시간쯤을 걸으면

능내역에 닿는다.





# 당신은 나에게

강동구 사우, 임성태 대표와 함께

## 선물같은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 '내 편'이 필요하다. 잘못된 길을 가도 무조건 옹호하는 'एं터리 내 편'이 아니라 당장은 쓰더라도 두고두고 약이 될 직언을 아끼지 않는 '진짜 내 편'이. 비슷한 시기에 큰 변화를 맞이한 두 사람이 만났다. '내 편'이 꼭 필요한 서로에게 선물처럼 나타난 스피드메이트 포항 이마트점 임성태 대표와 포항지점 강동구 사우.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Thank you so much!

글 허은경  
사진 류병문



포항지점  
강동구 사우



스피드메이트  
포항 이마트점  
임성태 대표



## 이마트신입생 VS 포항신입생

경력 15년의 베테랑과 일이 제법 몸에 익었을 4년 차 직장인을 별안간 긴장하게 하는 것은 변화였다. 스피드메이트 포항 해돋이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이마트점으로 자리를 옮긴 임성태 대표. 그는 지금 자나깨나 새로 만날 고객의 마음을 훔칠 궁리뿐이다.

포항지점 강동구 사우도 그렇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강 사우는 줄곧 마산에서 일하다 6개월 전 포항으로 왔다. 사람도 땅도 모두 낯선 곳에서 새롭게 터를 닦아야 하는 강동구 사우. 그러니 요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포항 사람이 되는 법뿐이다.

그런 두 사람이 반가운 선물처럼 만났다. 강동구 사우는 임성태 대표에게 대리점 이전 후 첫 담당자가 되었고, 임성태 대표는 강동구 사우에게 포항에서의 첫 대리점주가 되었다.

“임성태 대표님은 제게 선물이라기보다 보물이죠. 영업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파트너는 누가 뭐래도 매출 좋은 대리점이잖아요. 제가 해 드리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시니까 아주 든든하죠. 보면 뵈수록 배울 점도 많아서 자주 가게 돼요.” 임성태 대표는 강동구 사우의 첫인상이 좋았다.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에 푸근한 인상까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싶었다.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무뎡뎡하거든요. 쉽게 친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동구 사우는 제가 뭐가 좋은지 자주 와서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그러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래 본 사람처럼 편해졌지요.”

부족함을 채워줄 두 사람의 만남, 처음부터 시작이 좋다.

## 꼼꼼이 VS 귀요이

임성태 대표는 전에 비해 매출 목표액을 두 배로 잡고 있다. 대부분 차를 타고 와서 적어도 1~2시간은 머무르는 대형쇼핑센터 지점이니 쇼핑과 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실력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간다면 고정고객 확보와 매출 달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임성태 대표는 강동구 사우 같은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제품을 제때 공급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선물이죠. 주말이나 휴일에 갑자기 물건이 필요하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잘 쉬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때 강동구 사우는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고, 또 최대한 일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려고 그래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매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두 사람의 만남, 첫 걸음부터 시작이 좋다.

강동구 사우는 오히려 쑥스러워한다. 마음과 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더 잘해야죠. 전화를 반갑게 받는 거야 대표님이 워낙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좋아서 그렇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씩 배울 점이 생기기도 하죠.”

강동구 사우는 임성태 대표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게 많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습관, 꾸준한 메모로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강동구 사우도 요즘 메모를 시작했다. 꼼꼼함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차에 임 대표가 좋은 롤모델이 된 것이다. 아직은 서투르고 잊을 때도 있지만 꾸준히 닦아나갈 작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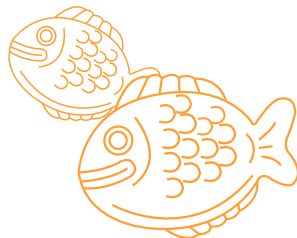
“저도 선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강 대리가 원한다면 좋은 선배가 되어야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내 편’을 만들어 가는 두 사람. 아직 꽃꽂이 연인처럼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니 어느새 든든한 아군이 되어간다.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하고, 훌륭하게 활용할 줄 아는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sup>(N)</sup>

# 원판 불변의 법칙 붕어빵 가족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 아닐까요.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까지 나왔겠지요. 그게 다 원판 불변의 법칙, '나'를 꼭 빼닮은 이유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준비했습니다. 넥센 사우들을 꽃미모를 빼닮은 붕어빵 가족사진을 공개합니다.

\* 다음 <별별 콘테스트> 주제는 '나의 전성기'입니다.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세요.  
박수현 인사팀 055,370,5283



P  
C  
R  
파  
트  
  
이  
경  
성  
  
사  
우

## 나의 꽃미모를 그대로 닮은 두 녀석

개구쟁이 4살 아들 동건이와 이쁜 공주님 도윤이입니다. 미운 4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동건이와 이제 겨우 9개월 된 도윤이지만 엄마 아빠에게 애교 만점, 폭풍 웃음을 선사하는 소중한 아이들이랍니다. 특히 동건이는 도윤이를 어찌나 예뻐하는지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사진을 찍을 때도 떨어지질 않네요. 저보단 오히려 두 아이가 붕어빵처럼 행동 하나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를 닮아 꽃미모라고 하는데, 역시 그런가요? 하하하. 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  
류  
파  
트  
  
조  
현  
철  
  
대  
리

## 아내와 저, 누구를 더 닮았나요?

2010년 여름, 짧은 휴가를 즐기던 중 경치가 좋아 갑작스럽게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저, 첫째 우영이, 아내, 둘째 은수지요. 사람들이 아이들의 눈썹이나 입부분 등이 저랑 꼭 닮았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눈매며 콧대며 아내를 더 닮은 것 같은데 말이죠. 거기다 아내의 참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지금껏 큰 사고 한번 없이 바르고 착하게 자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아내와 내기를 했습니다. 별별 콘테스트에서 승부를 가리자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더 닮았나요? 저인가요? 아내인가요?







가  
류  
파  
트  
  
김  
홍  
모  
  
과  
장

### 김씨부자 봉어빵 삼층석탑

둘째 아들의 일곱 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첫째 아들, 저, 둘째 아들이지요. 둘 다 엄마보다 아빠인 절 닮았던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특히 둘째는 눈썹과 눈이 저랑 판박이라고 그러네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제가 더 나옴데 말이죠. 사실 눈썹과 눈 말고도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점도, 엄마를 괴롭히는 점도 모두 절 닮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떨 땐 아들이 셋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웃음 잘날 없어 좋다고도 하네요. 어디 세상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요?

인  
재  
개  
발  
팀  
  
임  
광  
현  
  
사  
우

### 잠버릇까지 똑같은 정연공주

2009년 9월 16일 저희에게 온 정연이입니다. 비록 머리숱이 부족하고 하드코어한 놀이를 즐기지만 저 에겐 공주님이랍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먹는 거라면 다 먹으려 드는 튼튼한 제 딸. 얼굴도 닮았지만 식탐에 잠버릇까지 똑같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 방을 굴러다니다 엎드려 자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봉어빵. 최근 두 달이 넘도록 연수원에 있으며 영상 통화만 했더니 정연이는 아빠가 핸드폰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전화기 밖으로 나온 아빠와 친해지도록 많이 놀아줘야겠습니다.



재  
료  
파  
트  
  
최  
준  
권  
  
사  
우

### 좋은 면만 쓱쓱 골라서 닮아줄래?

2009년 7월 보물같은 우리 재혁이 첫 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눈은 엄마를 닮고 코는 아빠를 닮고 입은 저희 부부의 특징을 모두 닮았답니다. 엄마만 닮지도, 아빠만 닮지도 않아서 효자라고 불리는 우리 재혁이.

생각해보세요, 어느 한 쪽을 더 닮았다고 부부가 서로 싸우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거기다 좀 덜 닮은 쪽이 서운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전 아내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재혁이가 엄마를 조금 더 닮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말썽을 피울 때면 제 어릴 때랑 어쩔 그리 똑같은지. 그런 모습은 저와 봉어빵이지요. 재혁아, 아빠의 좋은 점도 좀 닮아줄래?

사실 유럽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평소 여행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처럼 필리핀이나 호주에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유럽이라니, '입사한 지 벌써 30년이나 됐나' 하는 감회보다 '유럽에도 가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다. 아내도 살아생전 유럽에 가보겠다며 여행 전날까지도 신이 났다. 무뚝뚝한 남편 탓에 여행다운 여행을 못해본 아내이니 그럴 만도 했다. 이번만은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리라, 다녀와서도 종종 여행을 하리라 다짐하며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도착한 이탈리아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감탄사를 연발케 했다. 로마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았다. 벽돌 한 개, 길 하나에서도 문화가 느껴졌다. 몇백 년 전의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건물도 따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먼저 포로 로마노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도중 콜로세움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봤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웅장한지 그 시대 문화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는 언젠가 다시 로마에 올 수 있길 빌며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 유럽의 역사에

30주년 장기근속자 유럽여행기

## 압도되다

글 구태문 직장 전기파트  
사진 이득기 직장 총무팀



이탈리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카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다. 살아 숨 쉬는 듯한 미켈란젤로의 조각들과 시스티나 예배당의 섬세한 벽화, 바티칸 박물관 등은 문화의 본고장 유럽을 실감케 했다.

짧게만 느껴진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향했다. 산과 눈, 집이 한데 어우러져 어찌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감동 그 자체였다. 스위스를 지나 도착한 곳은 예술의 나라 프랑스, 에펠 탑에 직접 오르기도 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루이 15세가 된 듯 걸어보기도 했다. 저녁에는 센강의 유람선에서 지는 노을을 감상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니 그간 지내온 세월이 스쳐 가며 남다른 감회가 일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이 가장 인상 깊었다. 천 년도 전에 지어진 궁전을 수리해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도 옛것을 저리 보존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9박 10일의 시간 내내 유럽의 장구한 문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 역사의 규모에 압도됐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도 둘러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넥센타이어라는 회사 덕분이 아닐까. 이런 여행을 보내준 것뿐 아니라 항상 직원들을 위해 복지를 생각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롭다. 이 자리를 빌려 회사와 노조, 그리고 우리를 인솔하느라 수고한 노조 간부분들께 감사사를 전한다. 10





# 스스로와의 약속

타이어테크 전주 덕진점

## 500개의 타이어

글 차승진  
사진 이용관



시원하게 뚫린 대로변에 위치한 타이어테크 전주 덕진점은 위풍당당한 중년보다는 풋풋한 패기의 청년을 연상시킨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안팎과 들어서는 순간 크게 울려 퍼지는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타이어를 쌓아올려 티 테이블을 만든 센스까지. 모두 31살 이희철 사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

“새해 소망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타이어 월 매출 500개입니다. 현재 400~450개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엔 속력을 좀 더 내야지요.”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만큼 꼭 이루고픈 소망이자 스스로와의 약속’이란 답이 돌아온다. 이십대 후반에 청운의 꿈을 품고 전주에 매장을 연 게 지난 2008년 5월. 울산이 고향인 그가 연고 없는 타지에서 창업을 했고 2009년 결혼해 아이까지 두었으니 그 책임감은 만만치 않았을 터. 밖에선 눈비를 맞으며 밤늦게까지 전단지과 명함을 돌렸고, 안에선 젊은 패기와 성실함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벽 1시에 전날 타이어를 구입한 고객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길에서 갑자기 차가 섰는데 너무 놀라 연락하셨던 거였죠. 일단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해 저희 매장 앞으로 차를 견인해 놓으라고 알려드렸죠. 아침 일찍 나가서 차를 살펴보겠다고요. 단골손님도 아니고 처음 타이어를 구입하셨던 분이데 힘들 때 제가 생각났다니 고마운 일이지.”

이희철 사장은 매장을 다녀간 고객에게 반드시 다시 전화를 걸어 차는 괜찮은지, 서비스 받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그 고객은 직접 확인전화까지 한 이희철 사장에게 오히려 고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라고. 스쳐갈 수도 있었던 인연을 이어지게 만드는 건 그저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2011년 그의 소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㉞

타이어테크 전주 덕진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116-1 tel. 063-278-8886

# TIRE O TECH

## 카메라 고르기의 네 단계 4 Steps

### 1st Step 무엇을 찍을 것인가?

사진 찍는 일이 직업인 나 역시 카메라를 선택하는 일은 언제나 고민스럽다. 종류 별로, 브랜드 별로, 모델 별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카메라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족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추억을 기록으로 남길 가족용 카메라를 주 용도로 설정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담는 것은 물론 아내의 모습이나 가족행사, 가족여행 등이 주요 피사체가 될 것이다.



### 2nd Step DSLR이나 똑딱이나?

용도가 정해졌다면 이제 똑딱이라고 부르는 일반 콤팩트 디카나 DSLR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나로서는 DSLR의 구입을 추천한다. 똑딱이와 DSLR 카메라는 화질이나 빠르기, 정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점차 다양한 사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콤팩트 디카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DSLR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DSLR은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과 또 내가 의도한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재미가 굉장하다. 따라서 사진에 대한 의욕과 금전적 여건이 된다면 DSLR을 권하고 싶다.

#### \* 똑딱이와 DSLR사이 '하이브리드 카메라'

쉽게 말하면 일반 콤팩트 디카의 장점과 DSLR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든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거울을 통해 상을 반사시켜 사진을 찍는 DSLR에서 거울을 없애고 일반 디카와 같은 방법으로 찍음으로써 훨씬 가볍고 날씬하다. 그러나 화질을 좌우하는 센서(필름역할)는 DSLR 못지않아 사진의 질이 뛰어나다. 따라서 성능과 간편함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다. 다만 아직 초창기라서 이에 맞는 렌즈군이 좁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도 탈이다. 특히 요즘 카메라는 똑딱이부터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DSLR의 구분은 기본이요,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된 모델명의 체계까지 이해해야 그나마 첫 발을 뗄 수 있다. 그렇다고 적지 않은 비용에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카메라를 복불복으로 고를 수도 없을 터. 셔터도 눌러보기도 전에 지쳐가는 이들을 위해 부족한 경험이나마 나누고 싶다.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카메라는 어떤 걸까?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카메라는?

글·사진 포토그래퍼 김요한 'DSLR 촬영편집' 저자  
(www.luxmodel.co.kr)





### 3rd Step | 캐논 VS 니콘 VS ?

카메라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다. 바로 캐논과 니콘이다. 최근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브랜드의 사진 차이가 크지 않다. 과거에는 인물은 캐논, 풍경은 니콘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단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우선 카메라 초점부분 즉 얼마나 원하는 곳에 초점을 잘 맞추느냐 하는 능력은 니콘이 약간 우세한 듯하다. 또 카메라의 기계적 성능과 견고함에서도 니콘이 조금 더 낫다는 평이다. 반면 캐논은 니콘보다 렌즈의 성능과 다양성에서 앞선다. 엄청난 화질을 보여주는 좋은 렌즈가 많으며, 인물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니콘보다 자연스럽다.

니콘과 캐논의 양대 산맥 말고 다른 봉우리도 존재한다. 소니나, 삼성, 올림푸스도 마니아층이 있을 만큼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니나 삼성 그리고 올림푸스의 경우 아직은 캐논과 니콘을 쓰는 유저들에 비하면 사용하는 층이 좁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빨리 발견하거나 대응하는 데 좀 느린 편이며, 가장 큰 단점은 렌즈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 4th Step | 어떤 렌즈가 유용할까?

카메라를 골랐다면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랐다. 마지막 경사인 '렌즈'만 선택하면 험난한 카메라 구입기도 막을 내린다.

렌즈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종류와 모델의 폭이 넓다. 개인적으로는 3가지 렌즈를 구비하기를 권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이다. 만약 딱 하나의 렌즈만 있어야 한다면 표준렌즈 24-70mm를 권한다. 사람이 보는 화각과 같아 편안하며, 여러 상황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70-200mm 망원렌즈를 추천한다.

이해 주변이 흐릿해지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좋아 인물 촬영에 적합하다.

여유가 있다면 광각렌즈도 좋다. 좁은 공간에서도 시원한 앵글이 가능해 많은 인물, 풍경, 인테리어에 적합하다.



체크할 사항	예시	사양에 따른 영향
해상도(화소)	1,000/2,000만 화소	해상도가 높으면 크게 인화할 수 있고 화질이 더 섬세하다.
측거점	9/51개	측거점이 많으면 초점 영역이 넓어지므로 구도변경이 쉽다.
크로스 측거점	1/9/37개	크로스 측거점이 몇 개인가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다.
연사속도	초당 5/9 연사	연사속도가 높을수록 초당 촬영 매수가 많아져 순간포착이 쉽다.
ISO	50~25,600	ISO 한계값이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서의 촬영이 수월하다.
동영상 지원가능	동영상 지원가능	최근 DSLR의 동영상 촬영 기능은 매우 뛰어난 방송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족용 캠코더 대용으로 쓰기에 충분하므로 기능을 잘 살펴보자.
한계셔터속도	1/4,000 ~ 1/8,000초	셔터속도가 높을수록 순간포착이 수월하고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
스팟지원	스팟지원/스팟연동가능	특정부분만의 노출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스팟기능이 있으면 측광을 할 때 용이하다.

### Be Careful! 장비병, 그리고 바꿀질 주의보

이제 정상에 올랐으니 사진 찍을 일만 남았다. 그러나 하산하기 전 한 가지 당부를 남기고 싶다. 필자도 그랬고 수많은 카메라 사용자들이 취미로 사진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 장비병과 바꿀질이다. 말인즉슨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렌즈를 가지면 사진의 부족한 부분이 금세 채워질 것만 같아 장비를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카메라와 렌즈로 바꾸기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만약 처음 구입 시 지식이 부족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 자신에게 더 알맞은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가져온다. 필자도 10여 차례 장비를 바꾸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약 700만 원 정도의 돈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런 손해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너무 저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 보다 두루 오래 쓸 것을 구입하는 편이 좋다. 물론 캐주얼한 사진촬영을 할 분들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일반디카나 저가의 보급형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어깨 위 피로곰 내려놓으세요

자료 <박자성 신수지의 123스트레칭> 자생한방병원,  
권대익 지음, 전나무숲



## 목과 어깨 스트레칭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목과 어깨가 어느새 앞으로 움츠러든다. 더구나 겨울엔 추위까지 겹치니 온종일 뒷목과 어깨가 빠근. 바쁘더라도 잠을 내어 뭉친 근육을 풀고 어깨 위 피로를 떨쳐내보자.

### 따뜻하게 목을 보호하기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말고 팔짱을 낀 채 종종걸음을 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런 자세는 떨어진 체온은 막아도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겨울철은 목 디스크 환자에게도 상당히 괴로운 계절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목뼈 주변의 근육이 굳어져 목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데다가 추위를 피하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다 보면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일자 목이나 거북목을 유발한다. 이는 목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생겨난 증상이다. 따라서 평소 뒷목 통증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외투에 터틀넥 스웨터나 목도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추위로 굳어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잠깐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다.

1



<< 허리를 곧추세워 앉거나 바르게 서서 양손을 등 뒤로 돌린다.

## Stretching 1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목을 잡아당긴다. 이때 머리는 당기는 쪽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좌우 각각 15초씩 2회 반복한다. >>

2



1



<< 책상이나 의자를 등지고 서서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는다.

## Stretching 2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어깨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낮춘다. 이때 목은 턱 쪽으로 당긴다. 같은 동작을 15초씩 2~3회 반복하면 긴장된 어깨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

2





## 뒷목의 승모근을 잘 관리하기

피곤하다 싶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부터 주무르게 된다. 피로와 통증을 해결하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목과 어깨로 이어진 삼각근의 상태를 보면 스트레스와 목 건강을 알 수 있다. 삼각근은 뒷목에서 등으로 퍼지는 근육으로 다른 근육과 함께 어깨 양쪽 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영향으로 뒷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수축되어 뻣뻣해진다. 목뼈가 일자로 변했을 때도 목뼈 주변의 승모근이 뻣뻣해져 뒷목과 어깨가 아프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긴다. 환절기 건강의 복병인 감기도 승모근을 뻣뻣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삼각근을 잘 관리하려면 어깨를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감기 초기에는 승모근의 딱딱해진 부분을 꼭꼭 누르거나 더운찜질로 풀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오른손을 왼쪽 머리 관자놀이 부분에 대고 머리를 감싼다.

### Stretching 1

오른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 옆 목과 어깨를 늘이는 느낌이 들도록 오른쪽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15초간 유지한다. 이 동작을 좌우 2회씩 반복한다.

>>



바른 자세로 앉는다.



고개를 옆으로 45도 정도 돌리고  
고개를 살짝 숙인다.



고개가 향한 쪽의 손을 들어 손바닥이 정수리를 덮도록 얹은 뒤 머리를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15초간 유지한다. 이 동작을 좌우 2회 반복한다. 목 주변 승모근의 긴장과 빠근한 통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 Stretching 2

# 까칠동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글 차승진  
사진 이맹호

참고 서적 <이 회사에서 나만 제정신이야?> 앨버트 번스타인 지음, 랜덤하우스 / <철없는 상사 길들이기> 린 테일러 지음, 펄칭 / <까다로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32가지 방법> 로이 릴리 지음, 비즈니스맵

내가 까칠해?



탱크도 저리가라 할 불도저 상사, 힘들고 어려운 일엔 쏙 빠지는 알미온 동료,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후배... 사회생활은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에 비유할 만큼 참을 인(忍)의 연속이다. 아무리 세상엔 제각각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 우리 팀엔 까다로운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라면 이젠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겠다. 까다로운 이들과 만나지 않게, 이왕이면 즐겁게 공생하는 법을 연구해보자.

미운 당신에게  
떡 하나!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답은 배우자나 가족보다도 직장동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상사, 동료, 후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사람이 싫으면 단순한 인간관계 뿐 아니라 업무 협조나 회의 등 조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가든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배울만한 점, 칭찬할만한 점을 찾아보자. 그 사람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존재임을 일단 인정해야 좀 더 유연하게 상대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보이기 마련이다.







### 불도저를 탄 독재자, 탱크형

너나할 것 없이 '대화'와 '상생'이 화두가 되는 사회지만, 여전히 직장엔 탱크형 상사가 존재한다. 위압적인 포스로 지시사항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체크하는 탱크형 상사. 그에게 부하직원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항법은 흥분하기 쉬운 상사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것. 물론 그 전에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 한다. 충분히 듣고 이해했음을 어필한 후 단호하게 의견을 전하라. 탱크형 상사에게 어물쩍 이야기를 하다가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다. 시선은 당당하게, 태도는 공손하게, 그리고 말은 아무지게, 절대 감정적으로 정면충돌하면 안 된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다. 똑똑한 탱크형 상사라면 당신의 영민함을 다시 볼 것이다.



###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미꾸라지형

부서 전체가 업무로 바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모두가 올인하고 있을 때 꼭 혼자만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에서 빠져나가는 동료가 있다.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상사는 그의 미꾸라지 짓을 인식하지 못하니 동료와 후배만 골치 아플 뿐이다. 미꾸라지형 동료를 다루는 법은 일단 모든 일을 공론화, 문서화하는 것이다. 부서의 공식적인 자리(보통 회의)에서 일에 대한 분배 혹은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되, 그것이 미꾸라지형 동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듯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세련된 방법이다. 미꾸라지형 동료에 대한 다른 동료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테니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좋다. 또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문서화, 즉 증거를 남겨 후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한다. 회의내용을 프린트해서 모두가 잘 보이는 벽이나 메모 보드에 붙여 놓는 것도 좋다. 보통 미꾸라지형은 업살도 심하니 일이 많다 호소해도 넘어가지 말자. 팀 전체로 볼 때, 모두가 눈치 보는 미꾸라지가 되느니, 미꾸라지 한 명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 옆 사람 속 터지는, 우유부단형

좁쌀만한 부담감도 천근만근인 사람들, 그래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우유부단형. 그는 자신의 의견이 거절 당할까봐, 잘못된 걸까봐 두려워 정작 필요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상사가 우유부단하다면 귀찮더라도 비서처럼 챙겨주며 끌고 가는 게 내가 편한 길이다. 우유부단한 상사 입장에서선 오히려 현명하게 자신을 보좌하는 부하직원이 든든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상사 대접은 깎듯이 해야 한다. 우유부단한 동료와 후배라면 도와주되, 마지막 결정은 스스로 내리게 하라.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하자. 우유부단형의 간접 표현이나 머뭇거림, 생략된 말에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忍忍忍



### 허풍에 오지랖이 결합한, 잘난척형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백과사전인 양 떠벌리는 허풍, 여기에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오지랖을 넓혀간다. 이러한 잘난척형에게 잘난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방법이다. 철저한 자료준비로 허풍을 잠재우고 대놓고 반대하는 것 보다는 질문을 통해 이성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다. 잘난척형의 잘난척을 역으로 생각해 부서의 더욱 큰 업무를 맡기는 것도 방법. 다만, 잘난척형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필요 이상으로 집요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덮는 지혜도 필요하다.



### 불평을 위한 불평, 투덜이형

투덜이 스며드는 귀염기라도 했지, 투덜이 동료는 자칫 모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매사에 토를 달고 짜증 섞인 불만을 토로한다면 누구의 기분도 유쾌할 수 없을 터. 투덜이형을 상대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 일단 그의 불평불만을 신중하게 들어준다. 특히 투덜이형 상사일 경우에 유용하다. 그의 불만 중 동의할 만하거나 정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하면 된다. 동료나 후배라면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도 좋다. 투덜대는 동료나 후배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 비난하는 논쟁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 이야기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시킨다. 투덜이형에게 핵심을 짚어 주되,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는 화법이 필요하다.



글 차승진

요리에도 썬스틸러가 있다? ‘화면을 훔치는 사람’이란 뜻의 썬스틸러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주연 못지않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를 일컫는다. 요리에도 ‘썬스틸러’라 불릴 만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조미료다. 조미료 한 스푼이 요리에 감칠맛을 더할 수도, 다 된 요리를 망치게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혹시 인공조미료 없이는 영 음식 맛이 나지 않거나 라면스프를 만능 조미료처럼 사용한다면 아래 정보에 주목하자. 쉽게 만들 수 있고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을 모아보았다.



### 고소하고 구수한, 들깨가루

들깨가루는 들깨를 곱게 갈은 다음 체에 밭쳐 만든다.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즙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둘 다 냉장보관은 필수다. 고소한 향이 일품인 들깨가루는 나물을 무칠 때나 건어물 조림, 버섯요리 등에 넣으면 좋고 된장국에도 잘 어울린다. 특히 요즘같이 찬바람이 부는 때엔 수제비나 칼국수 국물에 들깨가루를 풀어먹어도 속이 든든하다. 들깨즙은 우엉, 고구마줄기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에 넣으면 소화를 돕고 구수한 향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볶은 들깨가루에 꿀을 타서 마시는 들깨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도 촉촉하게 하니 겨울철 건강차로도 그만이다.



### 보약 부럽지 않다, 표고버섯가루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그윽한 향을 가진 표고버섯. 강력한 항균, 항암작용에 혈액순환도 촉진시키는 표고버섯은 가루로 만들면 약간만 넣어도 음식의 향과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일각에선 천연조미료 중 최고로 꼽힐 정도다.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이 뛰어나고 향이 진하다. 그래서인지 국물요리나 찌개를 끓일 때 표고버섯가루를 넣으면 고기로 맛을 낼 때보다 국물 맛이 좋다. 표고버섯가루는 분쇄기에 마른 표고버섯을 넣고 곱게 갈아 만들며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한다.



### 담백하게 깊은 맛, 무가루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고 했을 만큼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는다. 비타민 C도 풍부해 감기 걸리기 쉬운 겨울에 더욱 환영받는다. 무는 가루로 내어 천연조미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찌개나 국, 전골요리에 넣으면 담백하면서 깊은 맛을 낸다. 무를 깨끗이 씻어 얇게 나박썰기한 다음 벌에서 이를 정도 바짝 말린다. 마른 무는 거즈로 먼지를 잘 닦고 분쇄기에 곱게 간다. 이때 생강가루를 조금 넣으면 무의 잡내를 없애고 칼칼한 맛을 더해 알싸이쥬다.

### 단맛과 감칠맛의 조화, 멸치가루

버섯, 감자, 양파, 연근 등을 조리거나 볶을 때 멸치가루를 넣으면 한층 깊어진 단맛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멸치가루를 다양한 반찬에 넣으면 한식에서는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도 이롭다. 단, 멸치가루를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넣는다. 멸치가루를 만들 땐 내장과 머리를 말끔하게 떼어내야 쓴맛과 비린 맛을 줄일 수 있다. 취향에 따라선 멸치 머리가 고소하다 하는 이도 있으니 참고한다. 손질한 멸치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달군 팬에서

센 불로 볶아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간다. 건어물은 생각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체에 탁탁 거르고, 덜 갈린 가루는 다시 한번 분쇄기로 간다.

### 깊은 풍미는 내게 맡겨라, 새우가루

해물요리나 국, 찌개에서 새우 특유의 풍미가 빛을 발하는 건 예측 가능한 사실. 새우가루는 나물을 무칠 때 넣으면 향을 더욱 살려주고, 달걀찜에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줘 영양학적으로도 이로우니 이쯤 되면 만능 조미료라 하겠다.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말린 새우를 팬에서 바짝 볶아 분쇄기에 넣으면 되는데, 잔가시를 없애고 갈아야 더욱 곱게 갈린다. 새우가루는 냉동실에 보관해야 절은 내가 나지 않으니 잊지 말 것.

### 개운한 국물 맛의 비밀, 다시마가루

우리나라 국물 요리의 특성상 개운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는 다시마가루는 아주 요긴한 조미료다. 국물 내는 데 자주 사용하는 만큼 요리할 때마다 만들기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만드는 법은 다시마를 깨끗이 닦은 후 프라이팬에 올려 앞뒤로 바짝 굽는다. 바삭해진 다시마를 분쇄기나 작은 절구로 곱게 갈아 체에 거르면 완성. 다시마가루는 국은 기본이고 조림, 볶음, 찌개에도 잘 어울리고 해물칼국수 등 국수의 국물을 만들 때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 맛있는 천연조미료 똑똑하게 보관하기

기본적으로 천연조미료를 만들 재료는 질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맛도 좋고 몸에도 이롭다. 천연조미료는 모처럼 마음먹고 만드는 경우가 많고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면 맛과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당량을 만들길 권한다. 다시마와 멸치, 마른 새우는 실온에서 보관하면 자칫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뚜껑 달린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둔다.





### ● 가는 해 오는 해 길목에서 2010 종무식 & 2011 시무식

지난 12월 30일 양산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서 2010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이 열렸다. 2010년 자체 최고 성장률을 달성한 부분에 대해 자축하고 수고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었다.

이어 지난 1월 3일에는 시무식이 개최되었다. 이현봉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2012년 완공될 창녕공장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부탁하며, 노사가 힘을 모아 2011년에도 상호 발전하는 넥센타이어가 되기를 당부했다.

### ● 건강한 환경에서 능률도 쑥쑥 서울사무소 옥상쉼터 오픈

서울사무소가 옥상쉼터를 개장했다.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옥상쉼터는 간단한 운동 및 축구가 가능한 풋살 경기장과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



다. “직장인은 항상 운동이 부족한데, 옥상쉼터 덕에 운동을 하게 되어 좋다”며 사원들도 반가워했다. 넥센타이어는 옥상쉼터 같은 복지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해 사원들의 근무환경 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 ● 당신은 영원한 넥센타이어 가족 하반기 정년퇴임식 성료

지난 12월 30일 넥센타이어 하반기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동료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넥센타이어는 총 8명의 정년퇴임자에게 감사패와 순금 행운의 열쇠를 지급했다. 생산본부장인 양창수 상무와 조삼규 노조수석부위원장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퇴임자들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퇴임자들은 한번 넥센인은 영원한 가족이라며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상반기 정년퇴임자 생산담당 엄차암 차장, UHP파트 손복만, 정련파트 염병길,



제품관리파트 김문용, PCR파트 임광호, 민경복, 재료파트 장선희, 함태윤

● 서킷을 질주하는 넥센타이어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외  
넥센타이어가 꾸준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으로 모터스포츠의 명맥을 잇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2010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최종전을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했다. RV 최고 클래스인 SGT를 포함한 총 8개 클래스가 멋진 레이스를 펼쳤다.

더불어 넥센타이어는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CJ 티빙닷컴 슈퍼레이스 N9000 클래스에서 공식 후원사로서 제품의 품질력을 뽐냈다. 그 밖에도 지난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드리프트 이벤트에는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 카레이서 크리스티 카펜터가 참가해 대회 3위에 입상, 넥센타이어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 ● 나누고 합하면 발전의 원동력 2010 TPM활동 시상식

지난 12월 15일과 16일 공장혁신사무국은 사내분임조 개선사례 경진대회 및 11월 우수 분임조 · 2010 부서 제안왕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TPM 및 제안활동이 가장 우수한 사원과 분임조 및 부서를 선정하고 축하한 이번 행사에서는 PCR 파트의 양규상 사우가 5년 연속 제안왕을 수상하고 제안 마일리지 1000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도 제안 최우수 부서로는 정련파트가 TOP진단 최우수 부서로는 재료파트가 선정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 화기애애한 노사 화합의 자리 넥센타이어 직장 워크샵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창녕 부곡에서 넥센타이어 직장 워크샵이 열렸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창녕공장 부지 답사 및 준공 계획에 대한 발표와 '신명나



는 일터 만들기'라는 주제의 강의, 그 밖에 체육활동 등으로 2011년에 대한 비전과 직장동료 간 단합심 등을 기를 수 있었다. 이현봉 부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최고 생산성 달성에 대한 직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창녕공장 준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 도전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하반기 경력사원 및 기능직 교육

넥센타이어는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경력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창의적인 사고와 치밀한 팀워크로 글로벌 기업 도약의 주역이 될 경력사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넥센타이어의 전반을 이해하고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이어 12월 20일부터 5일간 양산 본사에서는 기능직 입문 교육이 있었다. 타이어 공정과 안전 환경, 신입사원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신입사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애사심을 키웠다.



### ●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 대구 · 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MOU 체결

넥센타이어는 지난 12월 15일 대구 · 경북 자동차부품진흥재단과 ITS 지능형 주행시험장 시험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MOU 체결했다. ITS 지능형 주행시험장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인접한 자동차 및 부품시험연구 지역혁신센터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부지 384,965㎡(투자비 총 974억원)에 건설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이다.

넥센타이어는 MOU 체결로 연구 · 개발 평가 인프라 형성 및 타이어 라벨링 법규, 인증 자립화를 위한 주행시험장 확보,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5년 글로벌 타이어 업계로의 성장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넥센타이어와 재단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독자 후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겐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글에 공감했습니다. 사보를 읽으며 글 속에 담긴 교훈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씩 새겨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교훈과 좌우명을 만들어 계획성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크랩을 해볼 정도로 좋은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새봄 충남 논산시 대교동**

'절대 사소하지 않은 몸이 보내는 SOS' 이 기사를 읽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딸아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며 지나치다가 딸아이에게 천식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 아낀다고 차일피일 미룬 일이 더욱 크게 돈이 들게 되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사를 읽고 어쩌나 찔리던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 **전행숙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헬로우 넥센〉을 처음 접한 독자입니다. 처음 느낌은 '신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듭해서 읽다보니 〈헬로우 넥센〉은 특색이 있는 사보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곳곳마다 열정이 느껴지고, 모든 독자층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숨은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헬로우 넥센〉이 오래오래 직원분들의 안식처, 그리고 독자들의 동반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 **김영선 충남 아산시 탕정면**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은 독자여러분과 함께하는 넥센타이어의 사보입니다. 〈헬로우 넥센〉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바라는 점 등을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넥센 히어로즈 유니폼, 넥센타이어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신청은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http://www.nexentir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인사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 퀴즈 당첨자

**김빛나리**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박재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박창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 **나경숙**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소은선**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하연수** 전남 여주시 웅천동  
**이정호** 부산시 진구 개금3동 ● **정주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김영숙**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 **김윤환**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복습 퀴즈

1				
2		3		7
4,5				
		6		

## 세로

- 1 이탈리아의 수도.
- 3 가루약 등을 담아 먹는 젤라틴으로 얇게 만든 작은 갑. 타임○○.
- 4 경상남도 도청소재지로 마산시와 진해시가 합쳐진 통합○○시.
- 7 실물의 형상을 색을 쓰지 않고 검은 빛깔의 질고 열음으로 나타내는 사진. 반대말은 컬러사진.

## 가로

- 2 넥센타이어의 신제품으로 프리미엄 택시전용타이어.
- 5 경상남도 북부에 있으며 2012년 넥센타이어의 제2공장이 들어서는 도시.
- 6 넥센타이어가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는 넥센 히어로즈의 감독.







# 축구는 우리의 친구

“패스, 패스! 마이 볼!”

“거기 막아, 거기 막아!”

검은 타이어가 녹색의 잔디로 부활한 마을 축구장입니다.

소리만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못지않은 동네리그가 펼쳐지네요.

사람이 공을 몰아가기도 하고, 공이 사람을 몰아가기도 하는군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사슴처럼 살았던 주중을 잊고 사자처럼 표효해도 좋은 주말 아침이니까요.

내친김에 박주영 식 세리머니도 해보고, 루니처럼 인상도 구겨보지요.

그나저나 오늘은 누가 자장면과 탕수육을 쏘게 될까요?

넥센의 디자인, 세계에 포커스를 맞추다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Design Award 수상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 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에도 더 많은 마음들을 모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 |   |          |                                       |   |
|---|----------|---------------------------------------|---|
| [ | 2010. 12 | 독일 IF Design Award 수상 (독일국제포럼 디자인하노버) | ] |
|   | 2010. 12 | N9000 Good Design 우수상 (한국 디자인 진흥원장상)  |   |
|   | 2010. 12 | 웹어워드 코리아 제조업부문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
|   | 2010. 11 | 지속가능경영대회 타이어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   |
|   | 2010. 06 | 글로벌고객만족대상 타이어부문 1위 (일본 능률협회 컨설팅)      |   |

2010 IF Design Award 수상작



**WINGUARD  
SPORT**

비대칭형 트레드패턴의  
고속주행 겨울용 타이어

**N8000**

스포츠 세단에 날개를 달다  
품위있는 질주본능